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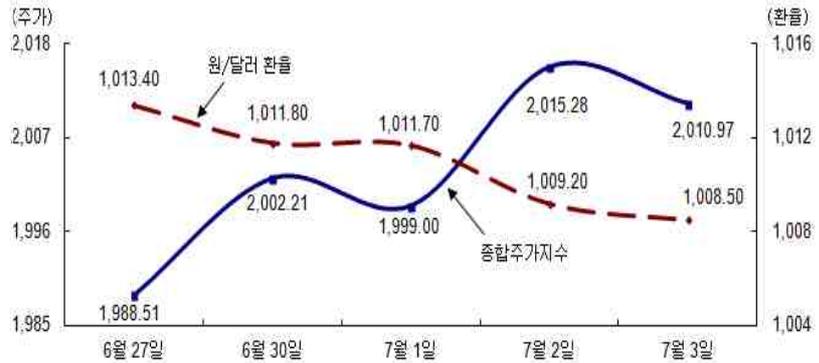
■ 위안화 국제화 평가와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週間 主要 經濟 指標 (6.27~7.3)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  |    |
|--|----|
| 주요 경제 현안 .....                                 | 1  |
| <input type="checkbox"/> 위안화 국제화 평가와 시사점 ..... | 1  |
|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 20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2072-6230, swan@hri.co.kr)  
 경제연구본부       :   한 재 진   연구위원 (2072-6225, hzz72@hri.co.kr)  
   천 용 찬   연구원 (2072-6274, junius73@hri.co.kr)

### □ 위안화 국제화 평가와 시사점

#### ■ 중국, 위안화 국제화 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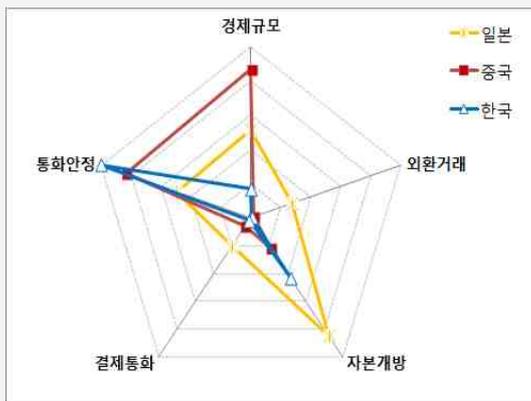
7월 3일부터 열리고 있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지정 등 양국 간 금융통화협력이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전세계 무역·금융 결제 및 지급결제에서 차지하는 위안화 비중이 각각 세계 2위, 7위로 부상하는 등 위안화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등 통화스와프와 위안화 역외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등 중국정부의 위안화 국제화 노력이 가속되고 있다. 만일, 위안화가 국제통화로 부상한다면,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세계 및 국내경제에 미달려 위상 약화에 따른 글로벌 무역 및 통화전쟁 등과 금융통상에서 對中 의존도 심화, 역내에서 원화의 상대적 위상 약화 등 영향도 우려된다.

#### ■ 위안화 국제화 평가와 전망

통화의 국제화란 일국의 통화가 기능별, 용도별, 지역별 등 3가지 측면에서 각각 3단계의 국제화 과정을 걸쳐 국제적으로 해당 통화가 널리 통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제규모, 통화가치의 안정성, 외환거래 규모, 자본거래 개방 수준, 결제통화로서의 위안화 수요 등 5가지 통화 국제화 여건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중국 위안화 국제화 수준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중국의 경제 규모는 일본의 국제화시기보다 3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 GDP 중 중국의 비중은 위안화 국제화가 시작된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약 17%씩 증가하였으며, 세계 수출중 비중도 동기간 연평균 16.4%씩 향상되었다. 이는 일본의 엔화국제화가 본격화된 1980년부터 1985년 사이 세계에서 일본의 GDP와 수출 비중이 각각 연평균 5.0%, 6.3% 증가한 것보다 약 3배 빠르게 증가한 셈이다. **둘째**, 물가 및 환율 변동성은 점차 안정화 되나, 환율제도의 시장화가 수준은 미흡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시기인 2009~2013년까지 물가변동성 및 실질환율 변동성 평균이 각각 0.89%, 2.2%이며, 이를 다시 동기간 미국 100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각각 100, 66.7로 계산된다. 이는 일본의 국제화 시기인 1994~1999년 사이 동 기준으로 계산된 물가와 실질환율의 변동성 지수인 66.7, 33.3을 상회하며, 일본과 비교해 기준 기간 동안 중국의 물가와 환율은 안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다만, 환율은 중국이 2005년 이래로 관리변동환율제를 고수하고 있어서 1973년 완전변동환율제로 전환된 일본보다 시장화 수준이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셋째**, 무역 결제 비중은 일본의 엔화 국제화시기(1980~1985년)보다 약 48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엔화 국제화시기(1980~1985년)와 비교해 총수출 중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은 낮은 수준이나, FTA 체결, 통화스와프 등 확대로 향후 위안화 수요 확대 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2009~2013년까지 중국의 무역결제 비중 평균은 5.8%로 일본의 엔화 국제화 시기인 1980~1985년 사이 엔화를 통한 무역결제 비중 평균 19.6%의 30%에 불과하다. 하지만 일본은 5년간 연평균 8% 증가에 그쳤으나, 중국은 연평균 약 385% 급증하는 등 무역결제 증가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넷째**, 자본개방도는 일본 엔화국제화 시기(1995~1999년)의 약 65% 개방한 상태이다. 최근 중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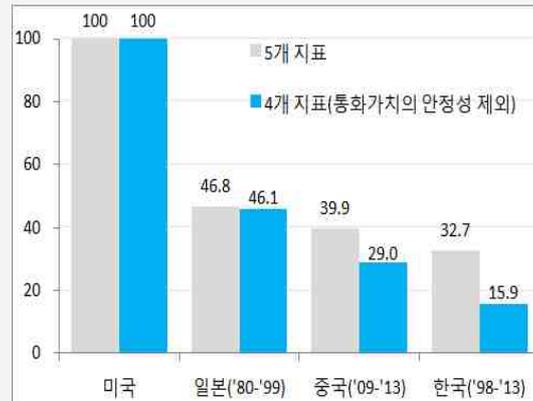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등 외국인의 역내 자본시장 투자뿐 아니라, 대출금리 자유화, 위안/달러 환율 변동폭 확대 등 자본계정 자유화 여건 조성을 가속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13개의 자본항목 중 12개 항목에서 규제가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도 역시 2013년 말 현재 67.4%로 미국 288.5%, 일본 193.8%에 비해 각각 23%, 34%에 불과하다. 더욱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국 자본개방도 평균은 67%로 과거 일본 국제화시기인 1995년부터 1999년까지 개방도 평균 96.4%의 65%에 머물고 있다. **다섯째**, 외환거래 규모는 미미하나, 거래 증가 속도는 일본의 엔화 국제화시기보다 빠르다. 2010~2013년까지 세계 외환시장에서 중국의 일일 거래 비중은 평균 1.5%로 지난 1989~1998년 사이 일본의 엔화 국제화 시기 당시 평균 24.4%의 6%에 불과하다. 하지만 거래 증가 속도는 일본이 연평균 2.4% 감소한데 반해 중국은 34.7%씩 급증하는 등 외환시장에서의 위안화 거래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중국 위안화는 통화의 기능별, 용도별, 지역별 등 3가지 기준으로 볼 때, 2단계 진입 과정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5가지 통화국제화 여건을 바탕으로 위안화 국제화 수준을 판단하면, 위안화는 미 달러 대비 약 29%~40%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엔화와 원화의 국제화 수준은 미 달러 대비 각각 46.1%~46.8%, 15.9%~32.7%로 나타나며, 한국은 한중일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한중일의 통화국제화 여건 비교 >  
(미국 = 10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 한중일의 통화국제화 수준 평가 >  
(미국 = 100)



## ■ 시사점

향후 위안화 국제화 가속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나타날 국내경제의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향후 위안화 수요 증가로 원화의 상대적 지위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국내 외환시장 충격 시뮬레이션 가동을 통해 사전적으로 검토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원화국제화 전략에 대한 전면적이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한·중 FTA 협상에서 국내에서 위안화 수요 증대를 가만한 양국간 금융 및 산업별 협력관계 재구축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넷째**, 통화스와프 활용,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 등 기회도 활용해야 한다. **다섯째**, 향후 중국 금융시장 개방화에 맞춰 對중국 진출 전략 수립 강구도 필요하다.

## 1. 중국, 위안화 국제화 추진 가속

- 7월 3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간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 등 양국 간 금융·통화 협력이 빠르게 진전
  -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FTA 연내 타결 노력 강화뿐 아니라, 원·위안 직거래 시장개설,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지정 등 양국 간 금융통화 협력이 크게 진전<sup>1)</sup>
- 위안화는 최근 몇 년간 무역결제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통화스와프 및 위안화 역외시장 확대 등 위안화 국제화 추진이 가속되고 있음
  - 최근 전세계 무역·금융에서 위안화 수요가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안화 변동폭 확대 등 위안화 국제화 조치가 가속
    - 전세계 무역·금융 결제에서 위안화 비중은 지난 2012년 1월 약 1.9%에서 21개월만인 2013년 10월 약 8.7%로 급증하며 세계 2위 도약
    - 달러 대비 위안의 일일 변동폭도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0.5%에서 ±2.0%로 최근 5년 동안 변동폭을 4배 확대하는 등 환율의 유연성 지속 확대
  - 중국은 2009년부터 국가 간 통화스와프 및 위안화 역외시장 확대 뿐 아니라, IMF 의결권 확대<sup>2)</sup> 위안화 직접투자 규제도 완화하는 등 위안화 국제화를 빠르게 추진

### < 전세계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

| 구분   | 시기      | 상대국        | 결제은행       |
|------|---------|------------|------------|
| 지정완료 | 2003.11 | 홍콩         | 중국은행       |
|      | 2013.01 | 대만         | 중국은행       |
|      | 2013.04 | 싱가포르       | 중국공상은행     |
|      | 2014.06 | 영국(런던)     | 중국건설은행     |
| 지정추진 | 2014.03 | 독일(프랑크푸르트) | 은행 지정 합의 중 |
|      | 2014.06 | 프랑스(파리)    |            |
|      | 2014.06 | 룩셈부르크      |            |
| 설립추진 | 2014.07 | 한국(서울)     | 은행 설립 추진 중 |

자료 : 내·외신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정리.

주 1. 청산결제제도는 양국 간 지정은행에 설치된 청산계정에 수출입을 기재, 일정기간마다 대차잔액만 결제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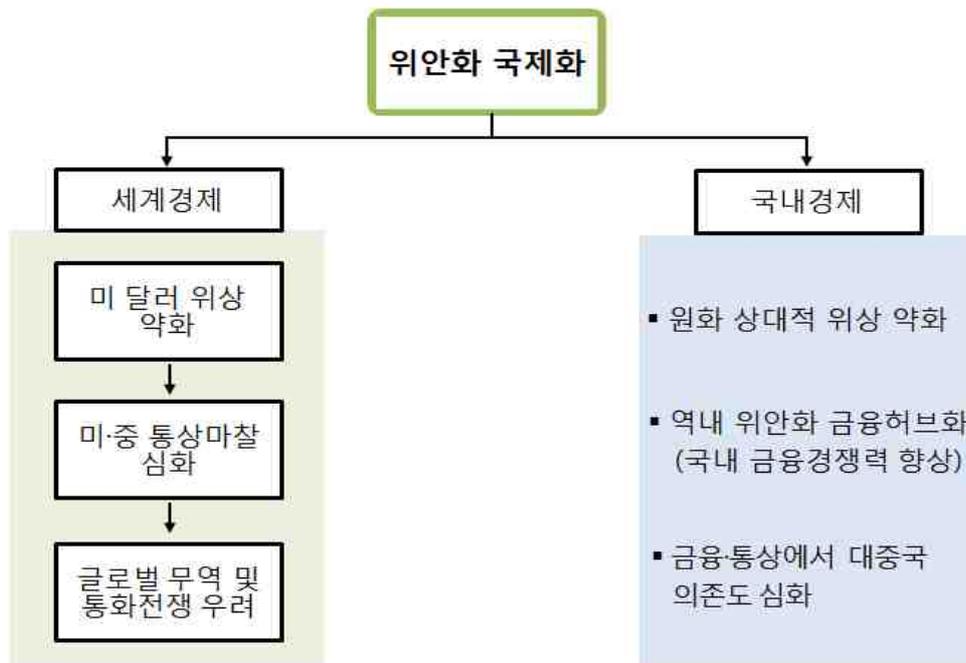
2. 위안화 예금 잔액에서 홍콩, 대만은 2014년, 싱가포르는 2013년, 런던은 2011년 말 기준임.

1) 【별첨 1】 참조.

2) 지난 2010년 말, IMF는 중국을 세계 3번째 쿼터 보유국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 브릭스(BRICS) 국가와 신흥국 의결권 확대에 대한 개혁안을 의결한 바 있음.

- 만일 위안화가 국제통화로 부상한다면, 역내 위안화 허브화 등으로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향상이 예상되나, 글로벌 무역 및 통화 마찰 등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
  - 위안화 국제화는 미 달러 위상 약화에 따른 미·중간 통상마찰 심화로 글로벌 무역 및 통화전쟁 확산시키는 등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 우려
    - 무역 및 금융시장에서 위안화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미달러 위상이 축소되어 미·중간 통상마찰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양국간 통상마찰 장기화는 결과적으로 글로벌 통화 및 무역전쟁으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
  - 국내경제는 역내 위안화 금융 허브화 가속에 따른 국내 금융경쟁력 향상과 함께 對中 경제의존도 심화로 원화의 상대적 위상 약화 초래도 예상
    - 위안화의 국제화 가속으로 역내에서 금융시장 주도권은 물론 역내 거래규범 이니셔티브 확보를 통해 위안화 금융허브로 지위 격상 가능성이 큼
    - 이에따라, 국내 금융 및 통상분야에서 위안화 수요가 증가하면서 對中 경제의존도가 더욱 심화 및 원화의 상대적 위상 약화 우려

< 위안화 국제화가 세계 및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작성.

## 2. 위안화 국제화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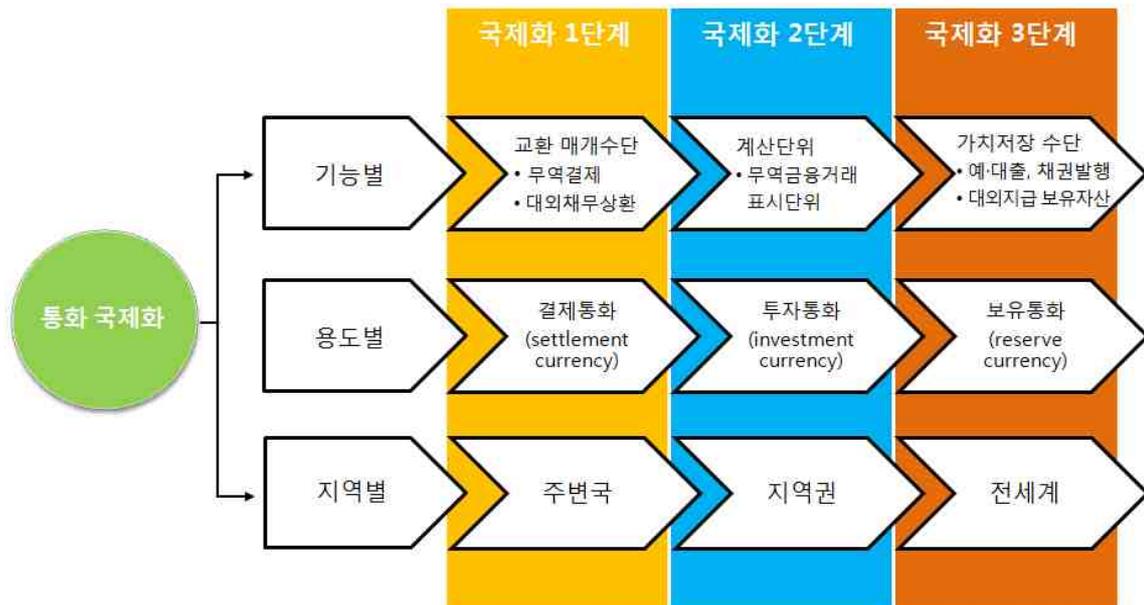
### 1) 위안화 국제화의 개념과 단계

○ 위안화 국제화 평가는 경제규모, 통화가치의 안정성 등 5가지 필요조건을 바탕으로 엔화와 원화 등 한중일 통화간 국제화 수준을 비교 및 점검

- 일국의 통화가 국제화되려면 3단계의 국제화 단계를 거쳐야 함

- 기능별로는 교환수단(Medium of Exchange), 계산단위(Unit of Account), 가치저장수단(Store of Value) 등 3가지 기능을 수행
- 또한, 용도별로 결제통화, 투자통화, 보유통화 단계를 걸쳐야 하며, 지역적으로는 주변국에서 지역권을 걸쳐 전세계적으로 통용되어야 함
- 종합하면, 국제화 1단계는 교환 매개수단, 결제통화, 주변국 등을 충족해야 하며, 2단계는 계산단위, 투자통화, 지역권으로, 3단계는 가치저장수단, 보유통화, 전세계 통용을 의미

#### < 위안화 국제화의 개념 및 전략 >



자료 : Kenen(1983), Chinn and Franke(2005)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정의.

- 한편, 통화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경제규모 확대, 외환시장의 거래 증대, 자본시장의 개방, 결제통화로서의 수요 확대 등 필요조건 충족이 요구됨<sup>3)</sup>

3) Chinn and Franke(2005), Gao and Yu(2012), Mazial et al.(2012) 등에 따르면, 통화 국제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해당 통화 국가의 경제규모, 통화가치 안정성, 금융시장의 규모, 외환시장의 개방, 결제통화로서의 수

- 통화 국제화 평가는 경제규모, 외환거래, 자본시장개방, 결제통화 수요, 통화가치의 안정성 등 5가지 여건에 대해 미 달러를 기준으로 판단
- 단, 엔화와 위안화의 국제화 시기가 다르므로, 엔화는 1980~1999년 사이, 위안화는 2009~2013년, 원화는 1998년~2013년까지를 국제화 과정으로 가정

< 위안화 국제화 5대 평가 기준 >

| 구분                         | 평가 내용  | 자료 출처  |
|----------------------------|--|--|
| 경제 펀드멘털                    | 경제규모   | - 세계 GDP 대비 해당국의 GDP 비중<br>- 세계 수출 대비 해당국의 수출 비중 |
|                            | 통화가치의 안정성                                      | - 소비자물가의 변동성<br>- 실질실효환율의 변동성                    |
| 교환 매개수단(결제통화)              | 결제통화 수요  | - 무역결제에서 자국통화 결제 비중<br>- 세계 통화중 지급결제 비중          |
| 계산단위 및 가치저장 수단 (투자 및 보유통화) | 자본시장 개방  | - 13개 자본항목의 개방도<br>- 자본 개방도                      |
|                            | 외환거래   | - 세계 외환시장에서 거래 비중<br>- 세계 외환거래 중 해당통화 비중         |
| 통화 국제화 수준 평가               | - 미국(달러)을 기준으로 일본(엔), 중국(위안화), 한국(원) 국제화 수준 평가 |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예를 들어 1980년대 일본의 엔화와 최근 2009~2013년 사이 중국의 위안화는 이러한 필요조건을 빠르게 충족시키고 있음

< 위안화·엔화의 국제화 과정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요 등 5가지 요건을 공통적인 요건으로 제시함.

2) 위안화 국제화 단계 점검

① 경제 규모 수준 : 일본의 1980~1985년 기간보다 약 3배 빠르게 증가

○ 중국과 일본의 통화국제화 시기를 비교할 때, 국제화 당시 양국의 GDP 및 수출 비중은 유사하나, 속도는 중국이 일본보다 약 3배 빠르게 증가

- 중국의 GDP 비중은 2009년 위안화 국제화 출범 당시와 1980년 일본이 엔화국제화를 본격화한 시기와 비교해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속도는 일본의 약 3배 이상 빠르게 증가

· 일본은 엔화국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80년부터 1985년까지 세계 GDP 중 비중이 약 10%에서 11%로 증가, 5년간 연평균 5%씩 성장

·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시작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동기준 약 8.6%에서 12.4%로 지난 4년간 연평균 16.5%씩 급증

- 수출비중도 중국이 일본보다 약 3배 빠르게 증가

· 세계 수출 중 중국의 수출비중은 2009년 9.6%에서 2013년 11.1%로 지난 4년간 연평균 16.4%씩 급증

· 반면, 일본은 동기준 1980년 6.4%에서 1985년 9.1%로 5년간 연평균 6.3% 증가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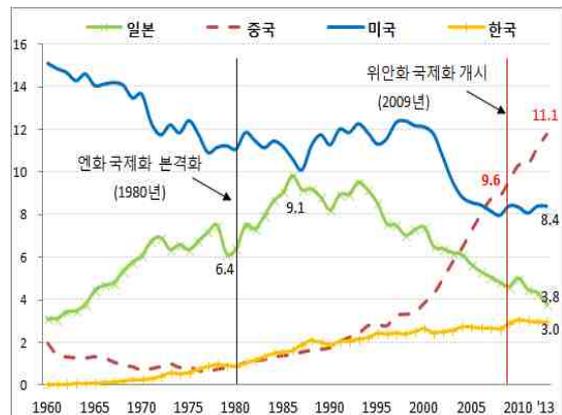
- 한편, 한국은 '97년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부터 2013년까지 GDP 및 수출이 각각 연평균 8.5%, 10.1%씩 성장하며 일본('80~'85)보다 빠르게 증가

< 세계 GDP 중 주요국의 GDP 비중 > (비중 %)



자료 : UN data, IMF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1944년 미 달러가 기축통화로 부상한 미국 경제는 당시 세계 GNP의 50%를 차지.

< 세계 수출 중 주요국의 수출 비중 >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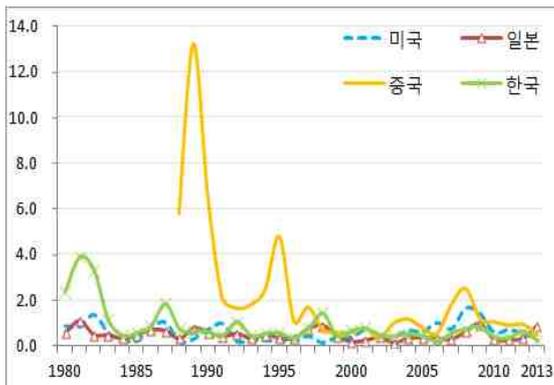


자료 : WTO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상품수출 기준.

② 통화가치의 안정성 : 안정세가 지속되나 환율의 유연성이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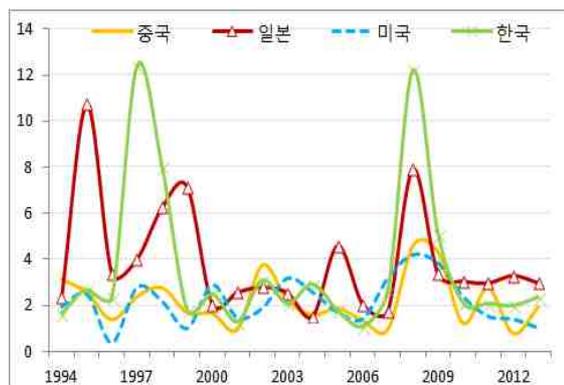
- 통화국제화 시기별로 볼 때, 중국의 물가와 환율 변동성은 일본보다 안정적이거나, 환율제도의 시장화 수준은 일본에 비해 미흡한 수준
  - 2009~2013년 사이 중국의 물가변동성은 일본의 국제화 시기(1994~1999년)와 비교해 변동성이 다소 높은 수준
    - 2009~2013년 사이 중국의 물가의 변동성 평균은 0.89%로 1994~1999년 일본 평균 0.55%, 1998~2013년 한국 0.58%보다는 높은 수준
    - 하지만, 각 국가의 통화국제화시기 때 미국을 100으로 하여 평가하면 중국은 100으로 일본 66.7보다 물가가 안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음
  - 환율도 동기간 중국이 일본, 한국보다 안정적
    - 2009~2013년 사이 중국 실질환율 변동성 평균은 2.2%로 1994~1999년 일본 5.6%, 1998~2013년 한국 3.3%보다 낮은 수준
    - 이를 각 국가의 국제화시기 당시 미국의 변동성을 100으로 하여 비교하면, 중국은 66.7로 일본 33.3보다 안정적으로 나타남

< 주요 통화국의 물가 변동성 추이 > (%)



자료 : 한국은행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물가변동성은 전년동기 월별 CPI 상승률의 표준편차 의미.

< 주요 통화국의 실질환율 변동성 추이 > (%)



자료 : BIS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실질환율 변동성은 실질실효환율의 연간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의미.

- 다만, 환율은 중국이 2005년 이래로 관리변동환율제를 고수하고 있어서 미국, 일본, 한국 등 완전변동환율제를 채택국보다 환율의 유연성이 미약한 상태
  - 중국은 지난 2005년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한 후 향후 15년 후인 2020년 내에 완전변동환율제로 전환할 계획

- 반면, 일본은 1971년 관리변동환율제에서 불과 2년만인 1973년 완전변동환율제로 전환,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 완전변동환율제로 전환

< 주요 국가별 환율제도 현황 >

| 구분      | 일본     | 중국         | 한국    |
|---------|--------|------------|-------|
| 고정환율제   | 1960년대 | 1997년      | 1945년 |
| 관리변동환율제 | 1971년  | 2005년      | 1980년 |
| 완전변동환율제 | 1973년  | 2020년 (목표) | 1997년 |

자료 : IMF, 한국은행, 일본재무성, 중국인민은행 등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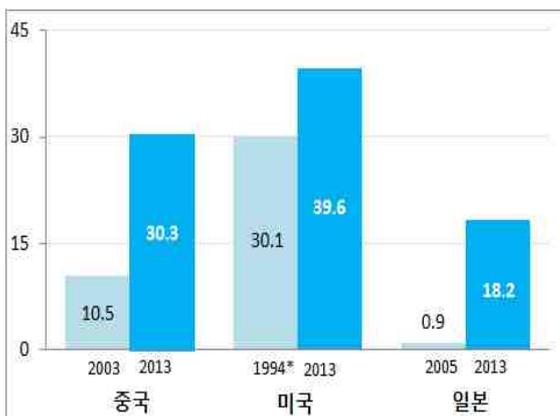
③ 결제통화로서의 수요 : 엔화보다 약 48배 빠르게 급증

○ 최근 FTA 체결, 통화스와프 등 확대로 무역결제 통화로서의 위안화 비중이 빠르게 증가

- 최근 중국정부는 FTA 체결, 국가간 통화스와프 등 결제통화로서의 위안화 수요 증대 여건이 지속 개선

- 중국의 전체 교역 중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이 지난 2003년 10.5%에서 2013년 30.3%로 증가, 통화스왑도 2014년 3월 현재, 전체 21개국과 약 4,000억 달러 체결

< 미중일의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미국무역대표부, 일본외무성.

1. 중국, 일본은 최초 FTA 체결시기와 현재 기준.
2. 미국은 1985년 이스라엘과 최초로 FTA를 체결, 1994년은 캐나다, 멕시코와 체결.

< 주요 국가 및 지역의 통화스와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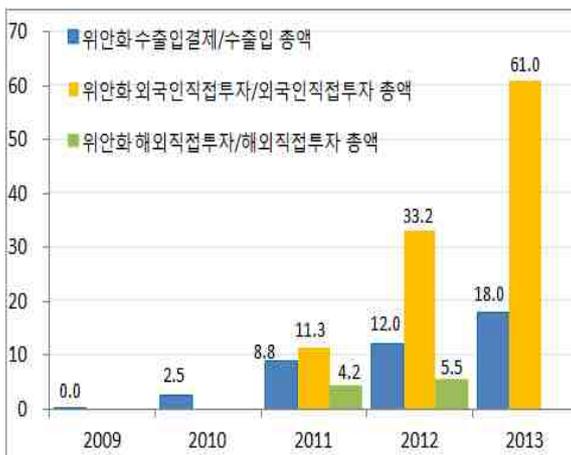
| 구분       | 통화스왑 규모              | 대상국  |
|----------|----------------------|------|
| 중국       | - 약 5,000억 달러        | 23개국 |
| 일본       | - 약 560억 달러          | 7개국  |
| 유로 (ECB) | - 약 565억 달러 (중국과 스왑) | 6개국  |
| 미국       | - 약 2,100억 달러        | 14개국 |

자료 : 각 국가 및 지역의 중앙은행 발표치 정리.

1. 통화스왑 규모 산정에서 무제한 협정은 제외.
2. ECB는 중국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스왑규모 미정.
3. 미국, 일본은 각각 무제한 스왑국가인 ECB, 영국, 일본, 스위스 등과 미국을 규모 산정에서 제외.

- 수출입 및 직접투자 결제에서 위안화수요가 빠르게 증가
  - 총수출입 중 위안화 수출입결제 비중은 2013년 현재 18%로 지난 2010년 2.5%보다 약 6배 증가
  - 전체 직접투자(IN+OUT) 총액 중 위안화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은 지난 2011년 11.3%에서 2013년 61.0%로 5.4배 증가, 위안화 해외직접투자 비중도 2012년 5.5%로 2011년 4.2%보다 소폭 상승
- 특히, 무역결제에서 위안화의 비중은 낮으나, 일본 엔화 국제화 시기(1980~1985년)때와 비교해 빠르게 증가
  - 일본의 엔화 국제화시기인 1980~1985년 사이 엔화를 통한 무역결제 비중은 평균 19.6%로 2009년~2013년까지 중국의 무역결제 비중 평균인 5.8%의 3배 이상<sup>4)</sup>
  - 하지만, 1980~1985년 사이 일본은 엔화 무역결제가 연평균 약 8.0%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2009~2013년 사이 위안화는 연평균 약 385% 증가하는 등 엔화보다 48배 빠르게 급증
  - 한편, 한국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원화로 결제되는 비중이 1.7%에 불과하나 최근 2년간 연평균 약 12% 증가하는 등 빠르게 향상

< 중국 위안화의 무역 및 직접투자에서 결제 비중 >  
(비중 %)



자료 : CEIC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주요국가의 무역결제에서 자국통화 결제 비중 >  
(비중 %)

| 구분 | 일본  |      |      |      | 중국  |      | 한국  |     |
|----|-----|------|------|------|-----|------|-----|-----|
|    | '70 | '80  | '85  | '12  | '10 | '11  | '11 | '13 |
| 수출 | 0.9 | 29.4 | 39.3 | 38.4 | 0.1 | 0.8  | 1.1 | 2.3 |
| 수입 | 0.3 | 2.4  | 7.3  | 22.9 | 0.9 | 10.8 | 3.7 | 3.6 |

자료 : Hiroo Taguchi(1994), Kiyotaka Sato(1998), 일본 재무성, ECB, 한국은행, CEIC 등 자료로 현경연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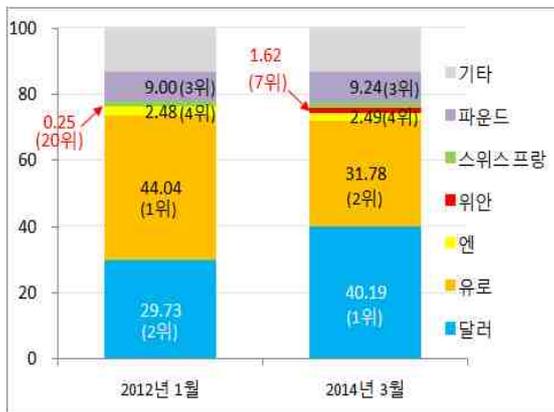
주 : 2011년 중국은 1/4분기 기준, 2013년 한국은 4/4분기 기준.

4) 일본은 엔화국제화가 본격화된 1980년부터 1985년 사이 수출입에서 미국,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등 선진국에 대한 엔화 결제가 평균 20~30%에 육박.

- 더욱이 세계 무역금융 및 지급결제 통화로서의 위안화 위상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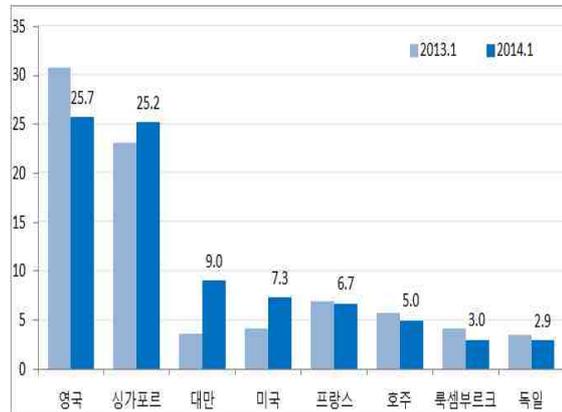
- SWIFT에 따르면, 위안화가 세계 무역금융(신용장 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1월 약 1.9%에서 2013년 10월 약 8.7%로 급증하며 세계 2위 통화로 부상
- 세계 지급결제 통화중 비중도 지난 2012년 1월 0.25%(세계 20위)에 불과했으나, 2014년 3월 전체의 1.62%로 증가하며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이 결제되는 통화로 도약
- 한편, 2014년 1월 현재, 위안화 지급결제 수요가 많은 국가는 홍콩과 중국본토를 제외하고 영국, 싱가포르, 대만, 미국, 프랑스 등 순으로 나타남<sup>5)</sup>

< 세계 주요통화의 지급결제 비중 > (비중 %)



자료 : SWIFT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1. 무역 및 금융 등 총 결제 기준.  
 2. ( )는 전세계에서의 지급통화 순위.

< 국가별 위안화 지급결제 비중 > (비중 %)



자료 : SWIFT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중국 및 홍콩 76%를 제외한 24%의 국가 중 비중.

④ 자본시장 개방 : 일본의 엔화국제화 시기('95~'99)의 약 65% 수준

○ 최근 금리 및 환율 개혁을 통해 자본계정 자유화 여건을 조성하고 있지만, 자본시장 개방 등에서 중국은 여전히 다른 통화국들보다 낮은 수준 지속

- 최근 외국인의 역내 자본시장 투자 한도 확대뿐 아니라, 대출금리 자유화, 위안/달러 환율 변동폭 확대 등 자본계정 자유화 여건 조성 가속

- 지난 2002년에 도입한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의 투자 한도가 2013년 7월 기준 8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로 확대

5) SWIFT(2014.2)에 따르면, 위안화 지급결제 국가는 홍콩(73%)과 중국본토(3%)를 제외한 24%에 해당하는 국가 중 영국이 25.7%로 가장 수요가 높고, 다음으로 싱가포르 25.2%, 대만 9.0% 등 순으로 조사됨.

- 또, 최근 2011년 12월에 도입된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sup>6)</sup>도 2014년 3월 현재, 총 5개국 62개 투자자에게 5,800억 위안의 투자 쿼터를 제공
- 더욱이 2020년까지 목표한 위안화 자본계정 태환 추진을 위해 최근 금리자유화, 환율 시장화 조치도 지속 추진

- 하지만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도는 일본 엔화 국제화시기의 65%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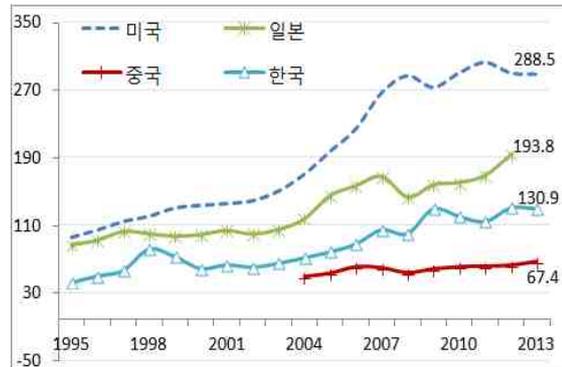
- AREAER(2013)에 따르면, 중국은 상업은행의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부문을 제외하고 전체 13개 항목 중 12개 항목에서 자본거래 규제가 지속
- 자본개방도<sup>7)</sup>도 미국(289%, 2013년), 일본(194%, 2012년), 한국(130.9%, 2013년) 등과 비교해 중국은 2013년 현재 약 67%에 불과
- 더욱이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 시기('09~'13년)의 자본개방도도 평균 62.4로 일본의 엔화 국제화시기('95~'99년) 평균 96.4의 65% 수준

< 주요국 자본거래 규제 현황 >

| 구분 | 개방항목 | 규제항목 |
|----|------|------|
| 미국 | 5개   | 8개   |
| 영국 | 10개  | 3개   |
| 일본 | 5개   | 8개   |
| 중국 | 1개   | 12개  |
| 한국 | 9개   | 4개   |

자료 : IMF(2013), *Annual Report on Exchange Arrangement and Exchange Restrictions*  
 주 : 전체 13개 자본항목 기준.

< 주요 통화국의 자본개방도 추이 >  
 (GDP 대비 비중, %)



자료 : 중국외환관리국, 일본 재무성, 미국 재무성, Eurostat, 한국은행 등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1. 자본개방도 = (외환보유고 제외 대외자산+대외부채)/GDP.  
 2. 유로는 17개 국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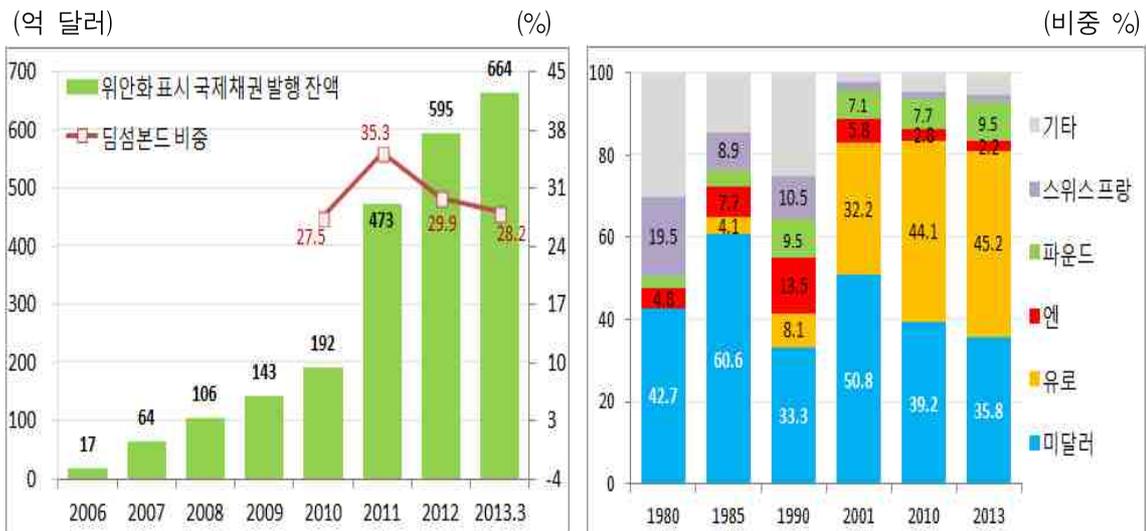
- 이에 따라, 위안화 채권 수요 급증하고 있으나, 전세계 통화 중 위안화 채권 발행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양상이 지속

- 2013년 국제시장에서 덤섬본드 발행규모는 3,718억 위안으로 지난 2009년 160억 위안의 약 23배 급증
- 하지만, 엔화가 글로벌 채권시장에서의 발행 비중이 지난 1980년 4.8%에서 1990년 13.5%로 3배 급증한 것에 비해 여전히 미흡

6) RQFII(Renminbi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란 2011년 말부터 역외 위안화로 중국 본토 A주 및 채권 투자를 허용한 제도로 2014년 3월말 현재, 홍콩(2,700억 위안), 대만(1,000억 위안), 싱가포르(500억 위안), 영국(800억 위안), 프랑스(800억 위안) 등 5개 국가에게 투자 쿼터를 제공. 한국(800억 위안)은 예정.

7) 자본개방도는 한국은행(2012), Milesi-Ferretti 외(2005) 등이 제시한 '(대외자산+ 대외부채)/GDP' 식으로 산출.

< 위안화 표시 국제채권 발행 추이 > < 주요 통화별 글로벌 채권 발행액 비중 >



자료 : Bloomberg.

주 : 딤섬본드는 위안화 표시 국제채권발행 잔액 중 비중을 의미.

자료 : Hiroo Taguchi(1994), BIS Quarterly Review March 2013, 2014 자료로 현경연 재정리.

주 : 1980-1990년까지 유로는 유로화 출범 전 통화인 ECU(European Currency Unit)로 대체.

⑤ 외환거래 규모 : 거래 증가 속도가 빠르게 향상

○ 최근 위안화 역외거래센터 확대 등으로 위안화의 역외거래 환경이 지속 개선되면서 위안화 거래가 일본의 엔화국제화 시기보다 빠르게 향상

- 2013년 현재, 전세계 외환시장에서의 위안화 거래는 미약한 수준

- 세계 외환시장에서 위안화의 일일 평균 거래 비중은 2013년 현재 2.2%(200% 기준)로 지난 2001년 0.0%보다 증가하며 세계 20위에서 9위로 도약했으나, 미 달러 87.0%, 유로화 33.4%, 엔화 23.0%에 비해 여전히 미약한 수준
- 더욱이 2013년 말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약 3조 8,000억 달러에 이르며 전세계 외환보유액 중 약 36%를 차지하나, 글로벌 외환보유액 구성 통화 중 위안화는 1.5%인 기타 통화로 분류되고 있어 비축통화로서의 입지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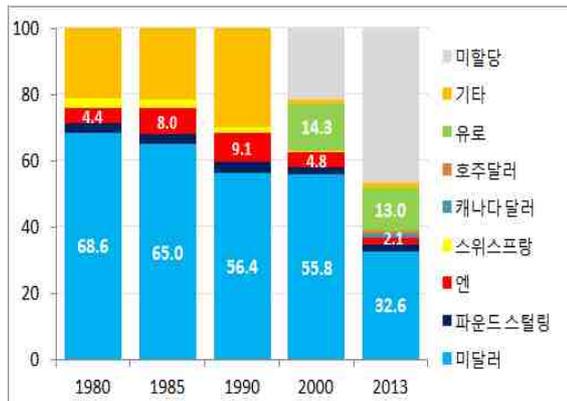
8) 한국은행(2013)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외국중앙은행의 은행간채권시장 투자한도로 추정할 때, 위안화는 전 세계 외환보유액 중 약 0.2%에 이르며, 이는 1972년 엔화 0.1%가 약 10년만인 1983년 5%로 상승한 점을 가만하면, 2020년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주요국의 일일 평균 외환거래 비중 > (%)



자료 : BIS(2013.9), Triennial Central Bank Survey.  
 주 1. 각 해당연도의 4월 일일 평균 거래액 기준.  
 2. 일일 평균 외환거래 비중은 전체 200% 기준.

< 글로벌 외환보유액 구성 통화 비중 > (비중 %)



자료 : COFER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1990년, 2013년 연말 잔액 기준.

- 하지만, 최근 위안화 역외거래센터를 싱가포르, 대만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으로 확대하면서 위안화의 역외거래 환경 개선 가속
  - 위안화 역외거래 센터는 지난 2007년 홍콩을 시작으로 2013년 말 현재 영국, 싱가포르, 대만 등으로 확대

< 세계 역외시장에서의 위안화 예금 잔액 >

(억 위안)

| 구분     | 홍콩 (2014.2) | 대만 (2014.2) | 영국 (2014.6) | 싱가포르 (2013.12) | 룩셈부르크 (2013.8) | 프랑스 (2013.7) | 한국 (2014.3) |
|--------|-------------|-------------|-------------|----------------|----------------|--------------|-------------|
| 위안화 예금 | 9,203       | 2,684       | 1,090       | 2,000          | 400            | 100          | 492         |

자료 : 홍콩금융당국, 대만중앙은행, City of London, 중국상무부, 중은홍콩자산관리공사, 한국은행 등 자료로 현경연 재정리.  
 주 1. ( )는 기준 시점.  
 2. 한국은 거주자외화예금 기준.

- 더욱이 일본의 국제화시기(1989~1998)와 비교해 빠르게 증가
  - 2010~2013년까지 세계 외환시장에서 중국의 일일 거래 비중은 평균 1.5%로 지난 1989~1998년 사이 일본 평균 24.4%에 비해 미약한 수준
  - 하지만, 거래 속도는 중국이 연평균 34.7%씩 증가한 반면, 일본은 연평균 2.4%씩 감소하는 등 외환시장에서 위안화의 거래가 빠르게 증가
  - 한편, 한국 원화는 1998~2013년 사이 세계 외환시장에서의 일일 거래 비중이 연평균 12.7%씩 증가

9) 위안화 역외거래센터는 2004년 홍콩을 시작으로 2011년 영국, 2013년 싱가포르, 대만, 룩셈부르크, 프랑스 등에서 개설됨.

### 3) 종합 평가

#### ○ 중국 위안화는 통화 국제화 2단계로 진입중인 것으로 평가됨

- 중국 위안화는 통화국제화 2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음
  - 위안화는 기능별, 용도별, 지역별 등으로 통화국제화 단계를 평가할 때, 2단계 진입 과정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반면, 일본은 지난 1980년대 이미 통화국제화 3단계로 진입하였으며,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 등 경제침체 장기화로 큰 진전을 못 이룸<sup>10)</sup>
  - 한편, 한국은 기능별 및 용도별로 무역결제 시 국내에서만 원화를 사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역별로도 진전이 없는 상태가 지속

#### < 한중일의 통화 국제화 단계 평가 >

| 구분  | 일본(엔화)    | 중국(위안화)   | 한국(원화) |
|-----|-----------|-----------|--------|
| 기능별 | 2단계 → 3단계 | 1단계 → 2단계 | 1단계    |
| 용도별 | 2단계 → 3단계 | 1단계 → 2단계 | 1단계    |
| 지역별 | 3단계       | 1단계 → 2단계 | -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정리.

주 : 기능별(교환 매개 수단 → 계산단위 → 가치저장 수단), 용도별(결제통화 → 투자통화 → 보유통화), 지역별(주변국 → 지역권 → 전세계).

#### ○ 위안화 국제화 수준은 미 달러 대비 약 40%에 도달

-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수준은 5가지 지표 중 경제규모, 통화가치의 안정성 등 경제 펀드멘털은 한중일 중 가장 견고한 수준
  - 세계 GDP 및 수출 비중, 통화가치의 안정성을 지수화하면 중국은 각각 86.5, 83.4로 한중일 중 가장 견고한 경제 펀드멘털을 보임
- 외환거래, 자본개방, 결제통화 등 3가지 지표에서는 일본보다 미약하나 빠르게 증가
  - 세계 외환시장에서의 거래 비중, 자본개방도, 자국 결제통화 비중 등에서 일본은 각각 27.6, 84.7, 20.4로 중국 각각 1.8, 21.6, 6.0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다만, 증가 속도는 세계 외환시장에서의 거래비중, 자국 결제통화 비중에서 중국은 연평균 각각 35%, 385%로 동기준 일본 -2.4%, 8.0%를 압도

10) 통화국제화의 기능별 및 용도별로 볼 때, 일본은 엔화국제화 본격화 시기인 1985년부터 미국,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등 선진국에서의 엔화 결제비중이 각각 19.7%, 51.3%로 증가, 수입에서도 1987년부터 미국, EC 등 선진국에서 9.2%, 27.3%가 엔화로 결제하는 등 무역결제에서 엔화 수요가 급증한 바 있음.

< 한중일 통화 국제화 비교평가 결과 >

(미국=100)

| 구분                               |                |               | 일본<br>(’80~’99년)   | 중국<br>(’09~’13년)    | 한국<br>(’98~’13년)   |                   |
|----------------------------------|----------------|---------------|--------------------|---------------------|--------------------|-------------------|
| 경제<br>편드멘털                       | 경제<br>규모       | GDP           | 지수                 | 34.1(’80~’85)       | 45.3(’09~’13)      | 5.9(’98~’13)      |
|                                  |                |               | 속도                 | 연평균 5.0%(’80~’85)   | 연평균 16.5%(’09~’13) | 연평균 8.5%(’98~’13) |
|                                  |                | 수출            | 지수                 | 68.9(’80~’85)       | 127.6(’09~’13)     | 28.5(’98~’13)     |
|                                  | 속도             |               | 연평균 6.3%(’80~’85)  | 연평균 16.4%(’09~’13)  | 연평균 10.1%(’98~’13) |                   |
|                                  | 지수 평균          |               | 51.5               | 86.5                | 17.2               |                   |
|                                  | 통화<br>안정성*     | 물가변동성         |                    | 66.7(’94~’99)       | 100(’09~’13)       | 100(’98~’13)      |
| 환율변동성                            |                | 33.3(’94~’99) | 66.7(’09~’13)      | 100(’98~’13)        |                    |                   |
| 지수 평균                            |                | 50.0          | 83.4               | 100                 |                    |                   |
| 교환매개 수단<br>(결제통화)                | 자국<br>통화<br>결제 | 지수            | 20.4(’80~’85)      | 6.0(’09~’13)        | 1.8(’11~’13)       |                   |
|                                  |                | 속도            | 연평균 7.9%(’80~’85)  | 연평균 384.7%(’09~’13) | 연평균 11.8%(’11~’13) |                   |
| 계산단위 및<br>가치저장<br>(투자 및<br>보유통화) | 자본<br>개방도      | 지수            | 84.7(’95~’99)      | 21.6(’09~’13)       | 43.6(’98~’13)      |                   |
|                                  |                | 속도            | 연평균 2.8%(’95~’99)  | 연평균 3.5%(’09~’13)   | 연평균 3.1%(’98~’13)  |                   |
|                                  | 외환<br>거래       | 지수            | 27.6(’89~’98)      | 1.8(’10~’13)        | 0.8(’98~’13)       |                   |
|                                  |                | 속도            | 연평균 -2.4%(’89~’98) | 연평균 34.7%(’10~’13)  | 연평균 12.7%(’98~’13) |                   |
| 통화국제화 수준                         | 5개 지표          |               | 46.8               | 39.9                | 32.7               |                   |
|                                  | 4개 지표          |               | 46.1               | 29.0                | 15.9               |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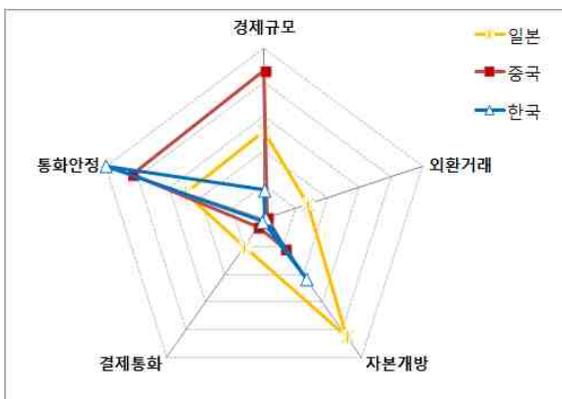
- 주 1. 각 요인별 지수는 일본(’80~’99), 중국(’09~’13), 한국(’98~’13) 등 세국가의 통화국제화 시기 내 기간을 대상으로 지수화.
- 2. 2013년 일본의 자본개방도는 2012년으로 대체.
- 3. 자국통화 결제는 수출입 평균 적용.
- 4. 물가는 변동성이 0%면 100, 0-0.5% 미만 75, 0.5-1.0% 미만 50, 1.0-1.5% 미만 25, 1.5% 초과시 0으로 산정.
- 5. 환율은 변동성이 0%면 100, 0-2.0% 미만 75, 2.0-4.0% 미만 50, 4.0-6.0% 미만 25, 6.0% 초과시 0으로 산정.

- 이에 따라, 위안화 국제화는 미달러 대비 29%~40% 수준에 이름

- 중국 위안화는 5개의 통화 국제화 여건을 미달러 기준으로 백분율하면 약 40%이며, 통화가치의 안정성을 제외할 경우 29%인 것으로 평가됨
- 한편, 한국은 동기준 15.9%~32.7%로 한중일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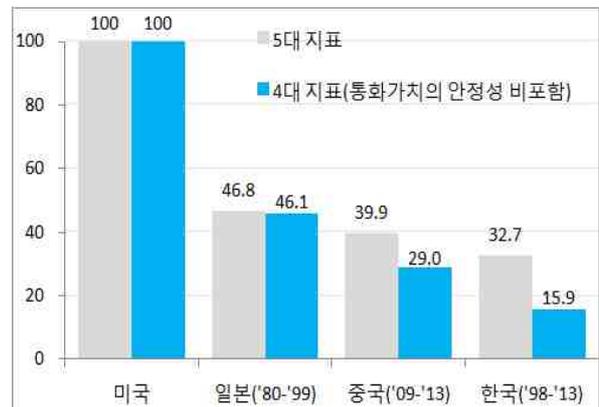
< 한중일의 통화국제화 여건 비교 >

(미국 = 100)



< 한중일의 통화국제화 수준 평가 >

(미국 = 10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 통화가치의 안정성은 지수화 과정에서 일부 과대평가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4대 지표만을 분리해 평가 및 표기.

### 3. 위안화 국제화 전망

○ 향후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정책 방향은 금리자유화를 먼저, 자본거래 및 환율시스템을 후행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

- 2009년부터 시작된 위안화 국제화의 토대가 마련

- 중국은 지난 1996년 경상거래 자유화를 한 후, 2002년 적격외국인직접투자(QFII)를 도입하는 등 자본시장 개방화 시작
- 이후 2009년 홍콩을 발판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본격화하면서 2010년에는 본토 비금융기관의 홍콩 내 덤섬본드 발행을 승인
- 2011년에는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제도를 도입, 위안화의 투자통화로서의 기능을 확대를 모색, 2014년부터 외국계은행의 덤섬본드 발행을 허용하는 등 개방화 가속

- 오는 2015년까지 예금 금리자유화를 완성한 후, 2020년까지 환율시스템과 비거주자 및 거주자에 대한 자본거래 개방 순으로 본격 진행될 예정

- 과거 일본은 1980년대 본격적인 통화국제화 진입에 앞서 환율시장화와 자본거래 자유화를 달성한 후 차후에 예대금리 자유화 조치 시행
- 반면, 중국은 예·대 금리자유화를 달성한 후 환율 및 자본거래 자유화로 가는 점진적인 금융시장 개방화 전략 진행

#### < 중국과 일본의 통화국제화 정책 변화 비교 >

| 구분                | 일본    | 중국        | 격차  |
|-------------------|-------|-----------|-----|
| 경상계정 개방           | 1964년 | 1996년     | 32년 |
| 비거주자 자국통화표시 채권 발행 | 1970년 | 2005년     | 35년 |
| 외환집중제도 폐지         | 1972년 | 2008년     | 36년 |
| 완전변동환율제 시행        | 1973년 | 2020년(예상) | 47년 |
| 자본거래 자유화          | 1980년 | 2020년(목표) | 40년 |
| 국제금융센터            | 1986년 | 2020년(목표) | 34년 |
| 대출금리 자유화          | 1989년 | 2013년     | 24년 |
| 예금금리 자유화          | 1994년 | 2015년(예상) | 21년 |

자료 : 일본 재무성, 중국인민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정리.

#### 4. 시사점

- 향후 위안화 국제화 가속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나타날 국내경제의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전략 모색 필요
  - 첫째, 향후 위안화 수요 증가로 원화의 상대적 지위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국내 외환시장 충격 시뮬레이션 가동을 통해 사전적 검토 및 플랜 제시
    - 향후 세계에서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 및 위안화 표시 자산 확대가 가속되면 서 국내에서의 위안화 허브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원화의 상대적 지위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가상적으로 위안화 사용에 따른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사전적으로 점검 및 대응 방안 제시
  - 둘째, 원화국제화 전략에 대한 전면적인 중장기 로드맵 작성 강구
    - 지난 1993년부터 시작했으나, 1997년 외환위기로 좌초된 원화국제화 전략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필요
    - 역외에서 원화 표시 무역결제 및 채권 발행 확대 등 원화국제화의 중장기적 목표 설정 강구
  - 셋째, 한중간 금융 및 통상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관계 재구축이 필요
    - 역내 금융 및 통상에서 위안화 수요가 증가할 경우, 양국 간 환헷지 비용 감소로 한중간 경제 동조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한·중 FTA 협상에서 국내에서 위안화 수요 증대를 가만한 양국 간 금융 및 산업별 협력관계 재구축을 사전에 점검
  - 넷째, 통화스와프 확대,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 등 기회 활용
    - 위안화 허브 전략 차원에서 국내 위안화 역외시장 구축을 통해 국내 금융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 한중간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에 따른 국내 위안화 수요가 증대되는 만큼, 중국내에서도 원화 사용 기회 확대 모색
  - 다섯째, 향후 중국 금융시장 개방화에 맞춰 對중국 진출 전략 수립 강구
    - 최근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시범구 등 중국정부의 금융시장 개방 플랜을 적극 활용할 뿐 아니라, 향후 QFII, RQFII 등 자본시장 규제 완화에 따른 對중국 진출 확대 모색

경제연구본부 연구위원 한재진 (02-2072-6225, hzz72@hri.co.kr)

연구원 천용찬 (2072-6274, junius73@hri.co.kr)

【별첨 1】 한·중 정상회담 주요 합의 내용(2014.7.2)

| 구분    | 주요내용                               |
|-------|------------------------------------|
| 경제    | -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협의                 |
|       | -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발전 협의             |
| 무역    | - 한중 FTA 연내 타결 노력                  |
|       | - 신속통관 등 편의를 위한 세관당국 협력 강화         |
|       | - 국산 김치 대중국 수출 무네 우선 협력분야 설정       |
|       | - 무역촉진행사 확대를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 도모        |
| 금융    | -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
|       | - 위안화 적격해외투자자(RQFII) 자격 부여         |
|       |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제안 평가 및 협의   |
|       | - 양국 수출입은행 간 초대형 에코신프젝트 금융계약 체결    |
| 환경·안전 | - 구제역 및 AI 등 예방 및 대처 강화            |
|       | - 원전안전을 위한 사건정보 통보 등 협력 확대         |
|       | - 사고 등에 대한 긴급구호 및 상호 지원 확대         |
|       | - 서해조어질서 유지 등 분야 긴밀히 협력            |
| 산업    | - 하이테크산업, 에너지 절감형 산업, 의료산업 등 분야 협력 |
|       | - 디지털, 방송 교류 확대                    |

자료 : 각 언론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별첨 2】 일본과 중국의 통화국제화 과정 비교

| 구분         | 일본(엔화)  | 중국(위안화)   |
|------------|---|---|
| 통화국제화 준비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0년 : 비거주자 엔계정 개설 허용, 엔화무역결제 허용</li> <li>- 1964년 : IMF Articles VIII 협정 이행 (경상거래 자유화)</li> <li>- 1970년 : 비거주자 엔화표시 채권 발행 허용(사무라이 본드)</li> <li>- 1971년 : 변동환율제로 전환</li> <li>- 1972년 : 외환집중제도 폐지</li> <li>- 1973년 : 완전변동환율제, 자본거래 규제 완화</li> <li>- 1975년 : CD 도입, 예금금리 자유화 시작</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6년 : IMF Articles VIII 협정 이행(경상거래 자유화)</li> <li>- 2002년 :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 도입</li> <li>- 2005년 : 비거주자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허용(판다 본드), 복수 통화바스켓 연동 관리제도 채택</li> <li>- 2008년 : 외환집중제도 폐지</li> <li>- 2009년 : 위안화 국제화 공식 선언, 홍콩을 시범으로 위안화 예금 결제 업무 시작</li> <li>- 2010년 : 본토 비금융기관의 홍콩 내 담신편드 발행 승인</li> <li>- 2011년 :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 투자자(RQFII) 시행</li> <li>- 2013년 : 대출금리 자유화, 상해 자유무역지대 시범구 출범</li> <li>- 2014년 : 외국계은행의 담신편드 발행 허용</li> </ul> |
| 통화 국제화 본격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0년 : 자본거래 자유화 실현</li> <li>- 1984년 : 금융시장 자유화, 외국금융기관 시장진입 개선, 비거주자 유로엔 채권 발행</li> <li>- 1985년 : 10억엔 이상 정기예금 자유화</li> <li>- 1986년 : 도쿄 역외시장 출범</li> <li>- 1989년 : 대출금리 자유화</li> <li>- 1994년 : 예금금리 자유화(당좌제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예정) : 예금금리 자유화, 상해 위안화 허브 플랜 가동</li> <li>- 2020년(예정) : 상해 국제금융센터 출범, 비거주자 자본거래 개방, 거주자 해외거래 개방</li> </ul>  |
| 통화 국제화 완성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7년 : 아시아 금융통화협력 및 엔화의 지역통화화 추진</li> <li>- 2003년 : 도쿄 국제금융센터 재추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정</li> </ul>  |

자료 : 한국은행(2013) 등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정리.

【별첨 3】 일본·중국·한국의 환율시스템 비교

| 일본  | 중국  | 한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3년: 변동폭 0.5%→0.75%</li> <li>- 1971년: 관리변동환율제 (1달러=308엔 고정 하에 밴드 설정)</li> <li>- 1973년: 완전변동환율제 시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8년: 이중환율제</li> <li>- 1994년: 관리변동환율제 도입 (일일 변동폭 ±0.3% 설정)</li> <li>- 1997년: 고정환율제 전환</li> <li>- 2005년: 복수통화바스켓 (일일 변동폭 ±0.3% 설정)</li> <li>- 2008년: 고정환율제 재시행 (1달러 = 6.83 위안)</li> <li>- 2010년: 관리변동환율제 재시행 (일일 변동폭 ±0.5%)</li> <li>- 2012년: 일일 변동폭 ±1.0%</li> <li>- 2014년: 일일 변동폭 ±2.0%</li> <li>- 2020년: 완전변동환율제 이행 목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5년 : 고정환율제도</li> <li>- 1964년 : 단일변동 환율제</li> <li>- 1980년 : 복수통화 바스켓 (관리변동 환율제)</li> <li>- 1990년 : 시장평균 환율제도 (관리변동 환율제)</li> <li>- 1997년 : 완전변동환율제 전환</li> </ul> |

자료 : 일본은행, 중국인민은행, 한국은행 등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정리.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 구분    | 2012년 |      |      |      |      | 2013년 |      |     |     |     | 2014년* |
|-------|-------|------|------|------|------|-------|------|-----|-----|-----|--------|
|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
| 미국    | 2.8   | 3.7  | 1.2  | 2.8  | 0.1  | 1.9   | 1.1  | 2.5 | 4.1 | 2.6 | 2.8    |
| 유로 지역 | -0.6  | -0.1 | -0.3 | -0.1 | -0.5 | -0.4  | -0.2 | 0.3 | 0.1 | 0.3 | 1.2    |
| 일본    | 2.0   | 3.7  | -1.7 | -3.1 | -0.2 | 1.7   | 4.8  | 3.9 | 1.1 | 1.0 | 1.4    |
| 중국    | 7.7   | 8.1  | 7.6  | 7.4  | 7.9  | 7.7   | 7.7  | 7.5 | 7.8 | 7.7 | 7.5    |

주 : 1) 2013년, 2014년 전망치\*는 IMF 2014년 4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유로 지역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 구분 | 2012년말           | 2013년   |         | 2014년   |         | 전주비     |          |
|----|------------------|---------|---------|---------|---------|---------|----------|
|    |                  | 6월말     | 12월말    | 6월 26일  | 7월 2일   |         |          |
| 해외 |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 1.70    | 2.46    | 3.03    | 2.53    | 2.63    | 0.10%p   |
|    | 엔/달러             | 85.86   | 98.51   | 105.04  | 101.73  | 101.77  | 0.04¥    |
|    | 달러/유로            | 1.3222  | 1.3031  | 1.3799  | 1.3612  | 1.3660  | 0.0048\$ |
|    | 다우존스지수(p)        | 12,938  | 14,910  | 16,577  | 16,846  | 16,976  | 130p     |
|    | 닛케이지수(p)         | 10,395  | 13,677  | 16,291  | 15,309  | 15,370  | 61p      |
| 국내 | 국고채 3년물 금리(%)    | 2.82    | 2.88    | 2.86    | 2.71    | 2.58    | -0.13%p  |
|    | 원/달러(원)          | 1,070.6 | 1,142.0 | 1,055.4 | 1,016.2 | 1009.2  | -7.0원    |
|    | 코스피지수(p)         | 1,997.1 | 1,863.3 | 2,011.3 | 1,995.1 | 2,015.3 | 20.2p    |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 구분      | 2012년말 | 2013년  |        | 2014년  |        | 전주비    |         |
|---------|--------|--------|--------|--------|--------|--------|---------|
|         |        | 6월말    | 12월말   | 6월 26일 | 7월 2일  |        |         |
| 국제 유가   | WTI    | 90.89  | 96.52  | 98.55  | 105.74 | 104.41 | -1.33\$ |
|         | Dubai  | 107.99 | 100.38 | 107.88 | 109.89 | 109.16 | -0.73\$ |
| CRB선물지수 |        | 294.78 | 275.62 | 280.17 | 312.74 | 307.86 | -4.88\$ |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 구분              | 2011        | 2012  |       |       | 2013  |       |       | 2014(E) |       |
|-----------------|-------------|-------|-------|-------|-------|-------|-------|---------|-------|
|                 |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
| 국민계정            | 경제성장률 (%)   | 3.7   | 2.5   | 2.1   | 2.3   | 2.4   | 3.5   | 3.0     | 3.6   |
|                 | 민간소비 (%)    | 2.9   | 1.2   | 2.6   | 1.9   | 1.9   | 2.1   | 2.0     | 2.5   |
|                 | 건설투자 (%)    | -3.4  | -3.2  | -4.6  | -3.9  | 6.4   | 7.0   | 6.7     | 2.6   |
|                 | 설비투자 (%)    | 4.7   | 4.3   | -4.1  | 0.1   | -8.3  | 6.2   | -1.5    | 5.4   |
| 대외거래            | 경상수지 (억 달러) | 187   | 109   | 400   | 508   | 313   | 486   | 799     | 790   |
|                 | 무역수지 (억 달러) | 308   | 109   | 174   | 283   | 200   | 241   | 440     | 455   |
|                 | 수출 (억 달러)   | 5,552 | 2,750 | 2,729 | 5,479 | 2,765 | 2,832 | 5,596   | 5,836 |
|                 | (증가율, %)    | 19.0  | 0.5   | -3.1  | -1.3  | 0.5   | 3.8   | 2.1     | 4.3   |
|                 | 수입 (억 달러)   | 5,244 | 2,641 | 2,555 | 5,196 | 2,565 | 2,591 | 5,156   | 5,381 |
|                 | (증가율, %)    | 23.3  | 2.3   | -4.0  | -0.9  | -2.9  | 1.4   | -0.8    | 4.4   |
| 소비자물가 (평균, %)   | 4.0         | 2.7   | 1.7   | 2.2   | 1.4   | 1.2   | 1.3   | 1.7     |       |
| 실업률 (평균, %)     | 3.4         | 3.5   | 2.9   | 3.2   | 3.4   | 2.9   | 3.1   | 3.6     |       |
| 원/달러 환율 (평균, 원) | 1,108       | 1,142 | 1,112 | 1,127 | 1,104 | 1,086 | 1,095 | 1,030   |       |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

## 보도참고자료 · 이 자료는 재배포 자료입니다.

제목 : 한·중 FTA 2단계 협상이 더 중요하다!  
- (2013.10.2. VIP 리포트)

■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 “위안화 국제화 평가와 시사점”과 관련하여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합니다.

또한 동 자료는 지난 13년 10월 2일(한중 FTA 2단계 협상이 더 중요하다!) 既 배포된 VIP Report 보고서임을 밝힙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는 인터넷([www.hri.co.kr](http://www.hri.c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 요약 >

### 한·중 FTA 2단계 협상 임박

최근 한중 FTA 협상이 1단계 기본지침(Modality)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2단계 협상이 임박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미국, EU 등 9개 국가와 FTA를 체결, 콜롬비아와는 발효대기 중에 있으며, 협상이 진행중인 국가도 15개국에 이르고 있다. 11 번째 체결국이 될 수도 있는 중국과는 지난 7월 1차 협상에서 90%의 관세철폐율을 합의 하면서 EU 등 타 협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협의에 그쳤다. 향후 일반, 민감 및 초민감 품목 선정 등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동안 對中 교역 품목의 경쟁력 변화를 반영한 품목 선정을 준비할 시기이다.

### 산업별 경쟁품목 비교

한·중 FTA를 위한 산업별 경쟁품목 분류는 OECD(1993) 등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4단계 과정을 거쳐 선정하였다. 분류방법은 시장비교우위(MCA :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분석, 무역특화지수(TSI : Trade Specialization Index) 등 기존 분석을 결합한 총 4단계의 분류작업을 통해 경쟁력에 따라 4개의 품목군으로 나누었다. 이를 기초로 과거 5년(2005~2010년)과 최근 2년(2010~2012년)간 품목별 경쟁력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對中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절대우위품목이 최근 2년간 50개나 감소하는 등 빠르게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더욱이 산업별로는 전자기계, 비금속제품 등 일부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한중간 분야별 산업경쟁력을 비교해 본 결과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수산물 분야는 경쟁우위가 대체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수입규제 등으로 경쟁력이 개선된 부분도 있다. 지난 7년간 중국산 육류, 신선과일 등에 대한 수입규제로 농수산물 분야의 경쟁우위품목은 20개 증가하였다. **둘째**, 화학제품은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 품목은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지난 7년 간, 경쟁우위품목은 16개 증가하며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으나, 의료·화장품 등 품목은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셋째**, 섬유·가죽제품도 경쟁력 우위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2년간 일부 품목은 약화되기도 하였다. 지난 7년간 경쟁우위품목은 26개 증가하는 등 경쟁력이 크게 개선되었다. 하지만 섬유제품은 경쟁력이 다소 약화되고 있다. **넷째**, 펄프·목제품은 전반적으로 경쟁우위가 유지되고 있으나, 종이제품 등은 약화되었다. 지난 7년간 경쟁우위품목이 8개 증가하였으나, 포장지, 인쇄용지 등 제품은 지속 약화되고 있다. **다섯째**, 비(卑)금속제품 분야는 경쟁우위가 약화되고 있으나, 기타 비금속 제품 일부는 향상되고 있다. 동, 아연 등 기타 비금속 제품을 중심으로 경쟁력 우위를 보이는 품목도 증가하고 있다. **여섯째**, 전자·기계 분야는 경쟁우위가 지속 약화되고 있으나, 반도체 등 일부품목은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기계·중장비 등은 지속 약화되고 있으나 전자회로, 의료용기기 등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일곱째**, 운송장비 분야는 경쟁우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선박 및 자동차부품 등 품목은 중국의 기술추격으로 위협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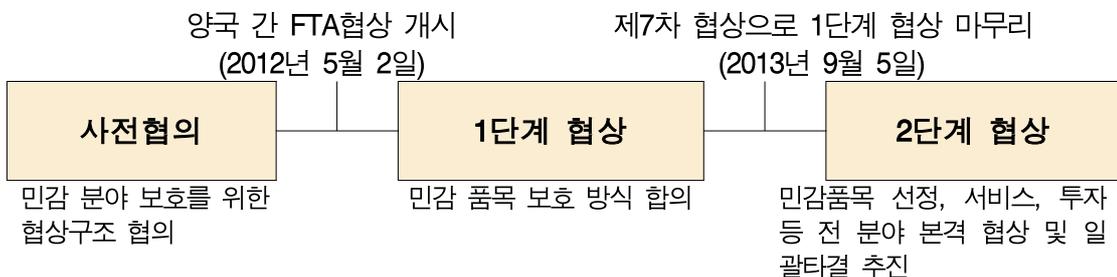
### 시 사 점

향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2단계 협상이 국내 산업에 한층 더 성장기반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양국간 비교우위 변화를 반영한 민감품목선정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양국간 규제에 따른 비교우위 변화도 고려하여 협상전략을 보완해야 한다. 셋째, 본격적인 FTA 협상에 앞서 對中 비교열위산업에 대한 경쟁력 보완 대책 및 향후 경쟁력 약화 우려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업계의 실사정도 반영한 현실적인 대응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신성장 산업 등 산업육성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1. 한·중 FTA 2단계 협상 임박

-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한중 FTA 협상이 1단계 기본지침(Modality)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향후 2단계 협상이 임박
- 한국은 지난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미국, EU, 터키 등 9개 국가와 FTA를 체결
  -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2013년 터키에 이르기까지 총 9개 국가에 다다름
  - 그 외에도, 콜롬비아와는 FTA 발효대기 중에 있으며, 중국, 베트남 등 기타 15개 국가 및 경제협력체와는 FTA 협상 진행중(본 협상진행, 협상여건조성, 공동연구)
- 지난 9년간의 한·중 FTA 논의는 최근 2단계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2단계의 민감 품목 선정을 앞두고 있음
  - 양국 간 FTA 논의는 지난 2004년 9월 한·중 통상장관 회담에서 민간공동연구 합의 후 2010년까지 산·관·학 공동연구가 진행
  - 2012년 5월에는 양국간 1단계 기본지침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지난 9월 5일에는 7차 협상을 끝으로 1단계 협상이 마무리<sup>11)</sup>
  - 특히, 한·중 FTA는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에 대한 피해를 감안하여, 1단계에서 민감 품목 보호범위를 정한 후, 2단계에서 전면적으로 품목협상을 하는 방식 채택<sup>12)</sup>

### < 한·중 FTA의 민감품목 협상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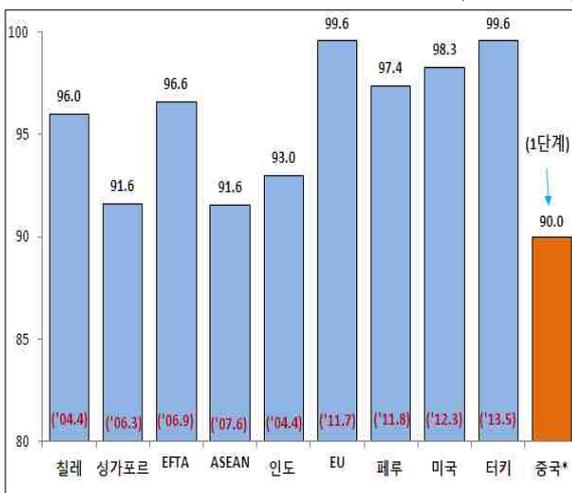
11) 한·중 FTA 협상은 올해 6월에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원칙” 재확인 이후, 2013년 7월의 제6차 협상에서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 무역상 기술장벽협정(TBT), 농수산물협력 등 9개 협정범위를 합의하여 협상의 기본 목표에 도달.

12) 한중 FTA 민감 품목은 2012년 1차 협상에서 양국간 FTA의 품목별 개방수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일반품목군은 10년 이내, 민감 품목은 10~20년 내 관세를 없애고, 초민감 품목은 양허를 제외 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음.

- 1단계에서 합의된 한·중 FTA의 관세철폐율은 90%로 한·미, 한·EU 등 타 협상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에 그침
  - 지난 2011년, 2012년에 발효된 한·미 및 한·EU FTA는 관세철폐율이 각각 98.3%, 99.6%로 높은 수준의 합의 도출
  -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체결된 곳은 싱가포르, ASEAN 등 2개 국가로 모두 91.6%로 합의
  - 반면, 최근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된 중국은 전체 품목의 90%, 전체 수입액의 85%로 합의되는 등 낮은 수준 협의에 그침
- 향후 한중 FTA 2단계 협상에서는 전체 품목 중 10%의 양허 제외 품목 선정뿐 아니라, 90%에 포함될 일반 및 민감 품목 선정 등 본격적 협상이 예상됨
  - 그동안 한국이 기체결국 간 FTA 체결 시, 양허제외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쌀, 과일, 육류, 수산물 등 1차산물이 주를 이룸
- 이에 따라 2차 협상에서는 지난 2005년과 비교해 최근 양국간 협상 품목들의 경쟁력 변화를 점검, 중장기적 관점에서 협의 고려 필요
  - 2005년 양국간 민간공동연구 때와 비교해 2012년 현재 농수산물뿐 아니라 전자기계, 화학제품 등 제조업 경쟁력 변화 추이 검토 필요성 증대

< 한국과 FTA 체결국 간 관세철폐율 > < 한국과 FTA 체결국 간 양허제외 품목 >

(단위 : %)



| 구분    | 주요 양허제외 품목                  |
|-------|-----------------------------|
| 칠레    | - 쌀, 사과, 배 등                |
| 싱가포르  | - 농림수산물, 휘발유, TV 수신기 등      |
| 인도    | - 쌀, 농작물, 육류, 석유제품 등        |
| 페루    | - 쌀, 쌀제품 등                  |
| 미국    | - 쌀, 쌀제품 등                  |
| 터키    | - 쇠고기, 돼지고기, 과일, 양념채소 등     |
| EFTA  | - 쌀, 육류, 낙농제품, 양념류 등        |
| ASEAN | - 쌀, 마늘, 양파, 냉동민어, 갈치, 조기 등 |
| EU    | - 쌀, 쌀제품 등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1. 중국은 1단계 협상에서 합의.
2. 관세철폐율은 품목수, 관세 완전 철폐 기간은 10년 내 기준.
3. ( )는 FTA 발효시기.

## 2. 산업별 경쟁품목 비교

### 1) 분석방법<sup>13)</sup>

- 총 1,247개 품목에 대한 對中 경쟁력 분석을 바탕으로, 4단계의 분류 과정을 거쳐 4개의 품목군으로 분류
  - 분석 품목은 총 1,247개 품목을 7개 카테고리로 분류
    - HS 코드 4단위 기준<sup>14)</sup>, 총 1,247개 품목에 대해 농수산물, 화학제품 등 7개 카테고리로 분류
    - 총 1,247개 데이터는 한국무역협회에 제공하는 2000년, 2005년, 2010년, 2012년 對中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
  - 경쟁 품목은 시장비교우위(MCA), 무역특화지수(TSI) 분석 등 4단계 과정을 거쳐 4개의 품목군으로 구분
    - 우선, 총 1,247개 품목을 MCA지수에 따라 절대 우위, 상대 우위 등 4개 품목군으로 분류
    - 이어서, 현재는 다소 경쟁력이 취약하나, 향후 경쟁력 확보 가능성이 큰 품목을 재조정. 즉, MCA지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품목의 재조정 및 분류
    - 다음으로, 한국 제품의 對中 무역수지와 교역규모를 고려, TSI 분석을 통하여 품목군 재조정 및 분류
    - 마지막으로, 국내 산업과 직접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수입특화품목들을 재조정<sup>15)</sup>하여 최종적으로 4개의 품목군으로 분류
  - 분석 방법은 4개로 분류된 품목을 바탕으로 과거 5년간(2005~2010년)과 최근 2년(2010~2012년)간 경쟁력 변화를 통해 점검

#### < 분석 품목의 경쟁력 수준별 분류 >

| 구 분    | 내 용                               |
|--------|-----------------------------------|
| 절대우위품목 | - 절대적 경쟁 우위 품목, 관세 즉시 철폐 가능 품목    |
| 상대우위품목 | - 경쟁력 일부 확보 품목, 단계적으로 관세철폐 가능 품목  |
| 상대열위품목 | - 경쟁력 일부 열위 품목, 관세협상에서 보호가 필요한 품목 |
| 절대열위품목 | - 절대적 경쟁력 취약 품목, 양허제외 필요성이 큰 품목   |

13) 4단계 분류과정은 OECD(1993), 정보통신부(2004) 및 KIEP(2005)의 분류기준을 참고로, 현대경제연구원 재정의. 단계별 자세한 분류과정은 부록1 참고.

14) HS코드 4단위는 그동안 1,244개로 구성했으나, 2002년 개정 후 1,247개로 재조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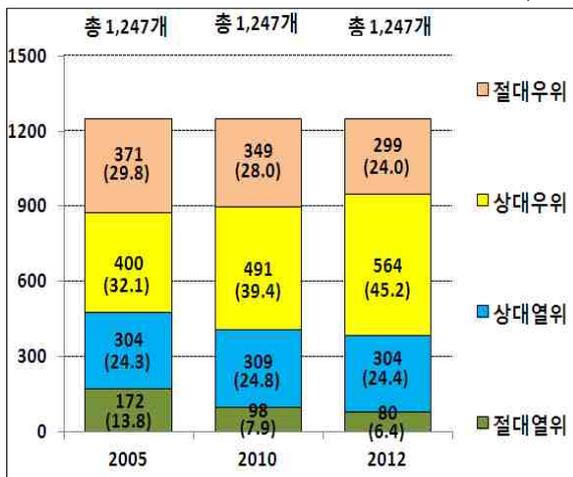
15) 對中 수입이 100%인 품목을 말하며, 비록 경쟁열위품목에 속한 품목이나 향후 협상을 위해 상대열위품목으로 격상시키는 등 재조정.

## 2) 분석 결과

-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우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절대우위품목이 최근 2년간 빠르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최근 상대우위품목이 크게 늘면서 전반적인 對中 경쟁력 우위 유지
    - 상대우위품목은 2005년 400개에서 2012년 564개로 증가하면서 전체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2%에서 45%로 증가
    - 더욱이 절대열위품목도 동 172개에서 80개로 감소, 비중도 14%에서 6%로 축소
  - 하지만, 對中 절대경쟁우위 품목은 최근 7년간 지속 감소
    - 절대우위품목의 감소폭은 최근 2년간(2010~2012년)에는 50개로 과거 5년간(2005~2010년)의 22개보다 2배 확대
    - 또, 상대열위품목은 과거 5년간 5개 증가하다 최근 2년간 5개가 감소하며 경쟁력 변화가 없음
  - 한편, 경쟁우위품목의 對中 수출은 증가하고, 경쟁열위품목의 對中 수입은 감소하고 있어 對中 경쟁 우위는 유지
    - 對中 교역 품목 중 경쟁열위 품목에 대한 수입액 비중은 2005년 39.6%에서 2012년 35.2%로 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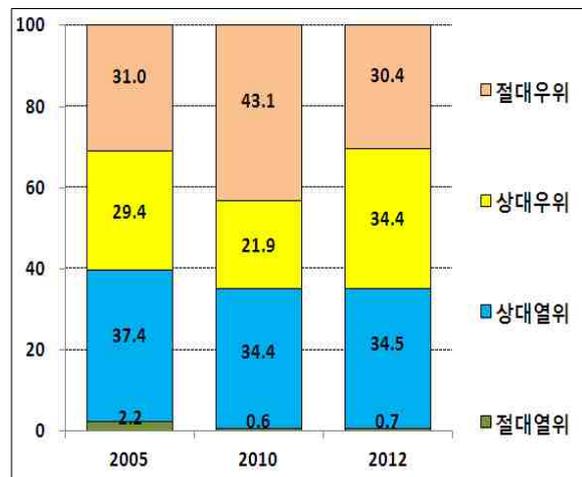
< 경쟁분류별 품목수 및 비중 >

(단위 : 개, %)



< 품목군 별 對中 수출입 비중 >

(단위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 )는 품목수 대비 비중임.

- 산업별로는 전자·기계, 비금속 제품 등 제조업 분야가 과거 5년간('05~10)보다

최근 2년간('10~'12)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

- 절대 및 상대우위품목 중 과거 5년간과 비교해 최근 2년간 감소폭이 큰 분야는 전자·기계, 농수산물 등으로 나타남
  - 절대우위품목 중 비금속 제품, 전자·기계 등 2개 분야는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되며, 섬유·가죽, 펄프·목제품은 감소 지속
  - 상대우위품목 중 농축수산물, 화학제품, 펄프·목제품, 전자·기계 등 4개 분야가 경쟁력 향상이 둔화
- 상대 및 절대열위품목 중 비금속제품, 전자·기계 등 2개 분야가 최근 2년간 감소폭이 과거 5년간보다 둔화하며 경쟁력이 약화되는 양상을 보임
  - 상대열위품목 중 비금속제품, 전자기계 등 2개 분야는 품목수 증가수가 최근 2년간 5개, 9개로 늘며 경쟁력이 크게 약화
  - 절대열위품목은 농축수산물, 화학제품, 섬유·가죽, 펄프·목제품, 비금속제품, 전자·기계 등 6개 분야에서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
- 특히, 농축수산물, 화학제품 등은 對中 경쟁력 우위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최근 2년간 빠르게 경쟁력이 약화
  - 농축수산물은 상대우위품목이 과거 5년간 증가폭이 19개에서 최근 2년간 7개로 감소했을 뿐 아니라, 절대 열위 품목도 -16개 감소에서 -1개 감소로 감소폭 축소
- 한편, 철도·항공기·선박 등 운송장비 분야는 경쟁력 우위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임

< 2005-2012년 분야별 경쟁 품목 증감수 >

(단위 : 개)

| 구 분    |     | 농축수<br>산물 | 화학<br>제품 | 섬유·<br>가죽 | 펄프·<br>목제품 | 비금속<br>제품 | 전자·<br>기계 | 운송<br>장비 | 기타  |
|--------|-----|-----------|----------|-----------|------------|-----------|-----------|----------|-----|
| 절대우위품목 | 5년간 | -4        | -4       | -8        | -5         | 3         | 7         | -3       | 1   |
|        | 2년간 | 0         | 2        | -6        | -4         | -19       | -16       | 3        | -10 |
| 상대우위품목 | 5년간 | 17        | 12       | 16        | 10         | 7         | 10        | 2        | 17  |
|        | 2년간 | 7         | 6        | 24        | 7          | 15        | 6         | 6        | 2   |
| 상대열위품목 | 5년간 | 3         | 1        | 7         | 1          | -4        | -1        | 2        | -4  |
|        | 2년간 | -6        | -1       | -13       | -2         | 5         | 9         | -6       | 9   |
| 절대열위품목 | 5년간 | -16       | -9       | -15       | -6         | -6        | -7        | -1       | -14 |
|        | 2년간 | -1        | -7       | -5        | -1         | -1        | 1         | -3       | -1  |

주 1. 음영 부분은 과거 5년간보다 최근 2년간 경쟁력 하락이 지속 및 증가한 분야.  
 2. 5년간(2005-2010년), 2년간(2010-2012년) 기준.  
 3. 자세한 내용은 부록 2, 3 참고.

① 농축수산물 분야 : 경쟁 유지 미약

○ 그동안 중국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등으로 對中 경쟁열위품목이 감소하는 등 경쟁력이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수산물, 작물 등은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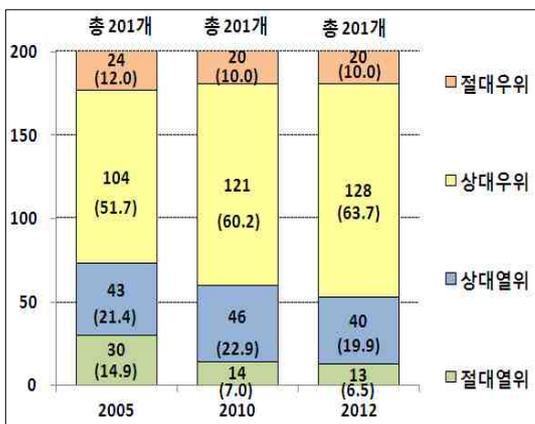
- 지난 2005~2012년 사이 중국산 농축수산물 수입 규제 강화 등에 따라 상대 및 절대열위품목이 동시에 감소

- 축산, 수산, 가공식품, 작물, 곡물·종자, 동식물성 유지 등 농축수산물 분야 중 경쟁우위 품목은 2012년 148개로 지난 2005년 128개보다 20개 증가
- 반면, 경쟁열위 품목은 돼지고기, 소고기 등 검역문제로 수입을 금지한 품목뿐 아니라 병충해로 인한 신선과일 수입 규제로 지난 2005년 73개(36.3%)에서 2012년에는 53개(26.4%)로 대폭 감소

-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농축수산물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수산물, 작물 등 농수산물 중 일부 품목은 여전히 경쟁 위협을 받고 있음

- 2005~2012년, 가공식품은 경쟁우위품목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對中 경쟁우위를 유지
- 전체 농축수산물 품목 중 전통적으로 對中 열위 품목으로 여겨졌던 축산, 수산품의 경우, 지속적으로 수입 제한 등 규제 강화로 경쟁품목수의 변화가 크지 않음
- 다만, 동기간 채소, 과일 등 작물은 對中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 농축수산물 품목수 및 비중 > (단위 : 개,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HRI 재구성  
주 : ( )는 품목수 대비 비중임.

< '05-12년 농축수산물 경쟁 품목수 변화 >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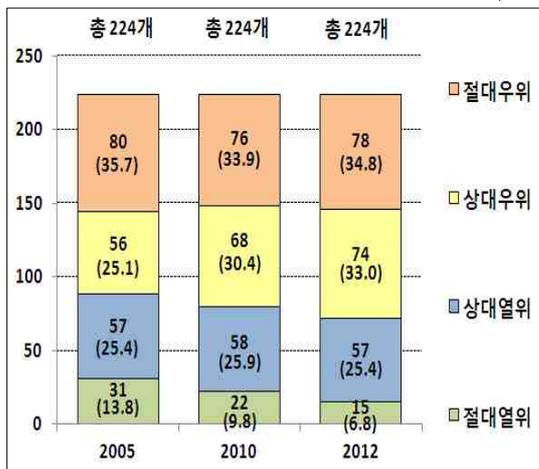
| 구 분    | 절대우위 |    | 상대우위 |    | 상대열위 |    | 절대열위 |    |
|--------|------|----|------|----|------|----|------|----|
|        | 5년   | 2년 | 5년   | 2년 | 5년   | 2년 | 5년   | 2년 |
| 축산     | 0    | 0  | 0    | 0  | 1    | 0  | -1   | 0  |
| 수산     | 0    | 0  | 0    | -1 | 0    | 1  | 0    | 0  |
| 가공식품   | -3   | 0  | 7    | 6  | 3    | -6 | -7   | 0  |
| 작물     | -2   | 0  | 5    | -1 | 1    | 1  | -4   | 0  |
| 곡물·종자  | 0    | 1  | 4    | 2  | 0    | -3 | -4   | 0  |
| 동식물 유지 | 1    | -1 | 1    | 1  | -2   | 1  | 0    | -1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HRI 재구성  
주 : 5년간(2005-2010년), 2년간(2010-2012년).

## ② 화학제품 분야 : 경쟁 우위 유지

- 유·무기 화학품 등은 對中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의료·화장품 등 저가 화학제품 분야에서는 경쟁력 지속 약화
  - 지난 2005~2012년 간 對中 화학제품의 경쟁우위 품목은 지속 증가하는 반면, 경쟁 열위 품목은 감소하며 경쟁력 향상
    - 의료·화장품, 유·무기 화학품, 화학공업품, 플라스틱·고무 등 화학제품 중 경쟁우위품목은 2012년 152개로 지난 2005년 136개보다 16개 품목이 증가
    - 반면, 중국에 대해 경쟁이 취약한 화학제품 품목수는 2005년 88개(39.2%)에서 2012년 72개(32.2%)로 감소
  - 산업별로는 유·무기 화학제품, 화학공업품, 플라스틱·고무 등 품목은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의료·화장품 등은 경쟁력이 하락
    - 유무기 화학품은 상대우위품목이 최근 2년간 7개 증가한 반면, 상대열위 및 절대열위 품목은 지속 하락
    - 더욱이 화학공업품과 플라스틱·고무 등 품목에서도 절대우위품목이 지속 증가할 뿐 아니라, 절대열위품목은 감소세가 지속
    - 하지만, 저가 의약품, 비료 등 제품과 유·무기 화학제품 중에서도 기초 원료로 사용되는 유도체 및 금속산화물 등은 지속적으로 경쟁 열위를 보이고 있음

< 화학제품분야의 품목수 및 비중 >  
(단위 : 개,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HRI 재구성.  
주 : ( )는 품목수 대비 비중임.

< '05-12년 화학제품의 경쟁 품목수 변화 >  
(단위 : 개)

| 구 분      | 절대우위 |    | 상대우위 |    | 상대열위 |    | 절대열위 |    |
|----------|------|----|------|----|------|----|------|----|
|          | 5년   | 2년 | 5년   | 2년 | 5년   | 2년 | 5년   | 2년 |
| 의료·화장품   | 0    | -2 | 4    | 0  | 0    | 1  | -4   | 1  |
| 유·무기 화학품 | 3    | 0  | -1   | 7  | 0    | -2 | -2   | -5 |
| 화학공업품    | -5   | 1  | 6    | 1  | 1    | 0  | -2   | -2 |
| 플라스틱·고무  | -2   | 3  | 3    | -2 | 0    | 0  | -1   |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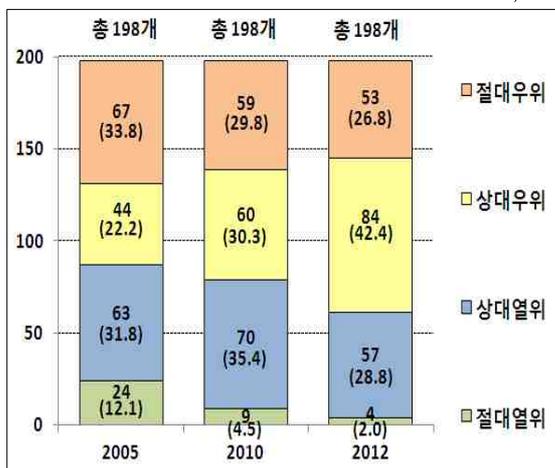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HRI 재구성.  
주 : 5년간(2005-2010년), 2년간(2010-2012년).

### ③ 섬유·가죽제품 분야 : 경쟁 우위 지속

○ 전반적으로 對中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원피·가죽·모피 등 제품의 경쟁력 취약 지속

- 2005~2012년 사이 섬유·가죽제품의 對中 경쟁우위 품목은 급증하나, 경쟁열위 품목은 감소하며 전반적인 경쟁력이 향상
  - 섬유제품, 원피·가죽·모피 등 섬유·가죽제품 분야 중 경쟁우위품목은 2012년 137개로 지난 2005년 111개에서 26개 증가
  - 반면, 경쟁열위품목은 2005년 87개(43.9%)에서 2012년 61개(30.8%)로 감소
- 산업별로는 원피·가죽·모피 등 품목 중심으로 對中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반면, 섬유제품은 절대우위 및 열위품목에서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
  - 원피·가죽·모피의 경우, 절대열위 품목수는 13개에서 8개로 5개 감소했으나, 對中 수입액이 큰 가죽 트렁크, 케이스 등 제품의 경쟁력은 지속 약화
  - 반면 의류, 천, 합성섬유 등 對中 수출액이 큰 섬유제품은 상대우위품목은 지속 증가, 상대열위품목은 지속 감소하는 등 경쟁력이 크게 향상
  - 한편, 절대열위품목은 과거 5년간 15개 감소했으나, 최근 2년간 품목수 감소가 멈추면서 경쟁력이 다소 약화

< 섬유·가죽제품 품목수 및 비중 > (단위 : 개,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HRI 재구성.  
주 : ( )는 품목수 대비 비중임.

< '05-12년 섬유·가죽제품 경쟁 품목수 변화 > (단위 : 개)

| 구분       | 절대우위 |    | 상대우위 |    | 상대열위 |     | 절대열위 |    |
|----------|------|----|------|----|------|-----|------|----|
|          | 5년   | 2년 | 5년   | 2년 | 5년   | 2년  | 5년   | 2년 |
| 원피·가죽·모피 | -2   | 2  | 2    | 3  | 0    | 0   | 0    | -5 |
| 섬유제품     | -6   | -8 | 14   | 21 | 7    | -13 | -15  | 0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HRI 재구성.  
주 : 5년간(2005-2010년), 2년간(2010-2012년).

#### ④ 펄프·목제품 분야 : 경쟁 우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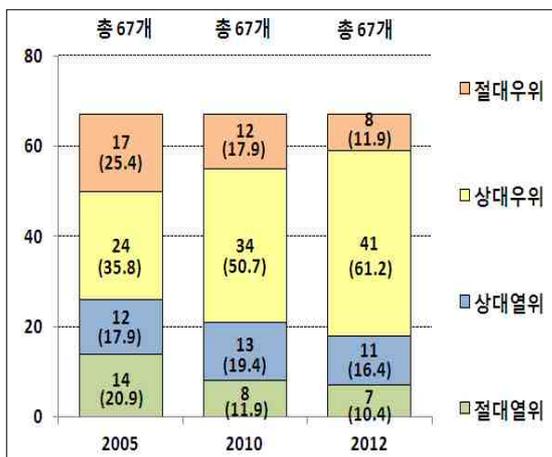
○ 전반적으로 對中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판지 등 종이·펄프 분야에서 對中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 2005-2012년 사이 펄프·목제품의 경쟁우위가 증가하며 경쟁력 지속 향상
  - 목재·펄프·종이, 목제품 등 펄프·목제품 분야 중 경쟁우위 품목은 2012년 49개로 2005년 41개보다 소폭 증가
  - 한편, 경쟁열위품목은 2005년 26개(38.8%)에서 2012년 18개(26.8%)로 감소
  - 특히, 절대우위 및 열위 품목 감소분이 상대우위품목으로 흡수되며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향상

- 산업별로는 목공품 등 목제품의 對中 경쟁력은 강화되나, 목재·펄프·종이 제품에서의 경쟁력은 지속 약화

- 목제품 분야는 목제통(桶), 목공품 등 12개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가 지속
- 반면, 목재·펄프·종이 제품 중 절대우위품목은 과거 5년간과 최근 2년간 각각 5개, 4개씩 감소할 뿐 아니라, 상대 열위 품목은 각각 2개씩 증가하는 등 경쟁력 약화 양상 지속
- 특히 판, 포장지, 인쇄용지 등은 최근 2년간 對中 경쟁력 약화로 경쟁열위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남

< 펄프·목제품 품목수 및 비중 >  
(단위 : 개,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HRI 재구성.  
주 : ( )는 품목수 대비 비중임.

< '05-12년 펄프·목제품 경쟁 품목수 변화 >  
(단위 : 개)

| 구분       | 절대우위 |    | 상대우위 |    | 상대열위 |    | 절대열위 |    |
|----------|------|----|------|----|------|----|------|----|
|          | 5년   | 2년 | 5년   | 2년 | 5년   | 2년 | 5년   | 2년 |
| 목제품      | 0    | 0  | 7    | 5  | -1   | -4 | -6   | -1 |
| 목재·펄프·종이 | -5   | -4 | 3    | 2  | 2    | 2  | 0    | 0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HRI 재구성.  
주 : 5년간(2005-2010년), 2년간(2010-2012년).

⑤ 비(卑)금속<sup>16</sup>제품 분야 : 경쟁 우위 약화

○ 對中 경쟁력 열위 품목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對中 수입이 많은 철강 및 관련 제품에서는 경쟁력이 지속 약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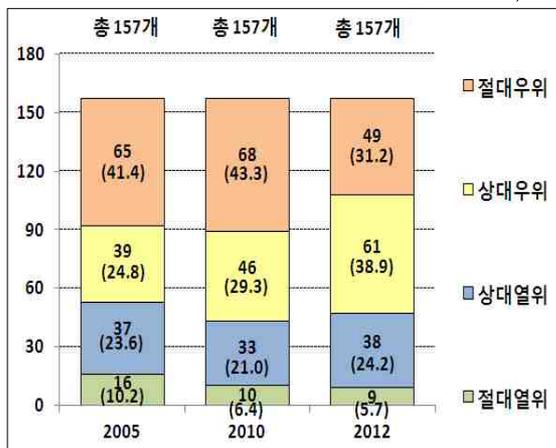
- 2005~2012년 사이 비금속제품의 對中경쟁력이 약화되는 양상을 보임

- 철강 및 그 제품, 니켈·동·알루미늄·연·아연 등 비금속제품 분야 중 경쟁우위 품목은 2012년 110개로 지난 2005년 104개에서 소폭 증가에 그침
- 더욱이 경쟁열위품목도 2005년 53개(33.8%)에서 2012년 47개(29.9%)로 소폭 감소에 머물

- 산업별로는 對中 수입이 많은 철 및 관련제품에서의 對中 경쟁력은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비금속제품도 경쟁력은 소폭 하락 양상을 보임

- 2005~2012년, 철 및 관련 제품의 對中 경쟁력이 대폭 약화
- 특히, 이 가운데 철강 성형제품, 케이블 등 중국에 대해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의 절대우위 품목수가 최근 2년간 28개에서 14개로 대폭 축소, 철강 관련 제품의 對中 경쟁력 약화에 큰 영향을 미침
- 반면, 동, 아연, 알루미늄 등 기타 비금속의 선·판·관 제품을 중심으로 경쟁우위 품목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절대우위품목은 감소하고 상대열위품목은 증가하며 경쟁력이 소폭 하락 양상

< 비금속제품의 품목수 및 비중 > (단위 : 개,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HRI 재구성.  
주 : ( ) 는 품목수 대비 비중임.

< '05-12년 비금속제품 경쟁 품목수 변화 > (단위 : 개)

| 구 분      | 절대우위 |     | 상대우위 |    | 상대열위 |    | 절대열위 |    |
|----------|------|-----|------|----|------|----|------|----|
|          | 5년   | 2년  | 5년   | 2년 | 5년   | 2년 | 5년   | 2년 |
| 철 및 관련제품 | 1    | -14 | -1   | 9  | 0    | 4  | 0    | 1  |
| 기타 비금속   | 2    | -5  | 8    | 6  | -4   | 1  | -6   | -2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HRI 재구성.  
주 : 5년간(2005-2010년), 2년간(2010-2012년).

16) 비금속(Base Metal)이란, 귀금속의 상대어로, 알칼리 금속·알칼리 토류 금속 등과 같이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되는 금속을 말하는 바, 주로 철강, 동, 니켈, 알루미늄, 연, 아연, 주석, 마그네슘, 망간 등을 포함함.

⑥ 전자·기계 분야 : 경쟁 우위 지속 약화

○ 전자회로·반도체 등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이 경쟁우위를 지속 확보하고 있지만, 일부 정밀기기, 가전제품 등 분야에서는 우위가 지속 약화

- 2005-2012년 사이 전자·기계분야의 경쟁우위품목은 감소하고 열위품목은 증가하는 등 경쟁력 약화 지속

· 기계·중장비, 전기·전자·반도체, 정밀기기 등 전자·기계 분야 중 경쟁우위품목은 2005년 111개에서 2012년 109개로 소폭 감소

· 반면, 경쟁열위품목은 2012년 59개(35.2%)로 2005년 57개(33.9%)에서 소폭 증가

- 산업별로는 전자회로, 다이오드 등 제품은 對中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기계·중장비, 가정용 제품 등은 경쟁력이 지속 약화

· 2005~2012년, 통신기기(핸드폰, 레이더 등), 전자회로, 반도체 디바이스 등과 측정기기, 의료용기기 등 일부 정밀기기 분야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인 경쟁우위 유지

· 하지만, 데이터처리기기, 가열·조리기기, 인쇄용 기기 등 기계·중장비, 일부 가정용 전기제품 분야에서는 경쟁열위 양상 지속

· 특히, 기계·중장비 제품의 절대 및 상대우위품목은 최근 2년간 감소폭이 증가했을뿐 아니라, 상대 및 절대우위품목은 증가세를 보이는 등 對中 경쟁력 약화 양상이 지속

< 전자·기계 품목수 및 비중 >

(단위 : 개,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HRI 재구성  
주 : ( )는 품목수 대비 비중임.

< '05-12년 전자기제품 경쟁 품목수 변화 >

(단위 : 개)

| 구분       | 절대우위 |    | 상대우위 |    | 상대열위 |    | 절대열위 |    |
|----------|------|----|------|----|------|----|------|----|
|          | 5년   | 2년 | 5년   | 2년 | 5년   | 2년 | 5년   | 2년 |
| 기계·중장비   | -6   | -7 | 6    | 2  | 4    | 5  | -4   | 0  |
| 전자전자·반도체 | 0    | -2 | 4    | 1  | -2   | 0  | -2   | 1  |
| 정밀기기     | 4    | -7 | 0    | 3  | -3   | 4  | -1   | 0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HRI 재구성  
주 : 5년간(2005-2010년), 2년간(2010-2012년).

⑦ 운송장비 분야 : 경쟁 우위 지속

○ 완성차를 중심으로 對中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선박 및 자동차부품 등 분야에서는 경쟁 열위가 여전히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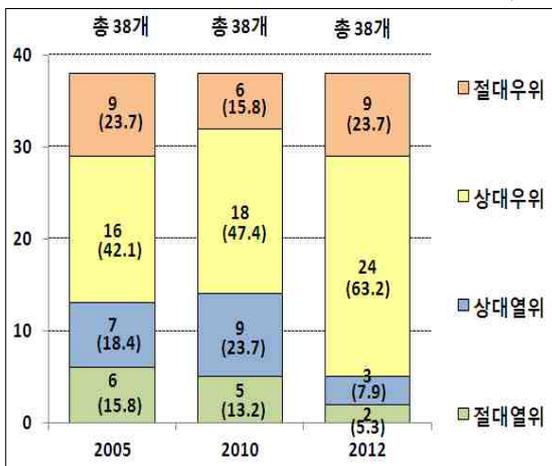
- 2005~2012년 사이 운송장비 분야의 對中 수입품목 38개 중 상대 및 절대 열위 품목은 13개에서 5개로 감소

- 철도·항공·선박, 자동차 및 부품 등 운송장비 분야 중 경쟁우위품목은 2005년 25개에서 2012년 33개로 증가
- 반면, 경쟁열위품목은 2012년 5개(13.2%)로 2005년 13개(34.2%)보다 감소

- 산업별로는 선박, 자동차 부품의 對中 경쟁력 열위 지속

- 2005~2012년, 선박·철도·항공분야 등 운송장비 분야는 절대 및 상대우위품목은 증가한 반면 상대 및 절대 열위품목은 감소하며 對中 경쟁력 향상
- 하지만, 순항선·유람선·페리 등 선박 분야는 對中 경쟁열위가 그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
- 더욱이, 자동차 부품 분야는 對中 중간재 수요 등으로 경쟁력 우위가 지속되고 있으나, 중국의 기술 향상으로 경쟁력이 점차 약화 양상을 보임

< 운송장비의 품목수 및 비중 >  
(단위 : 개,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HRI 재구성.  
주 : ( ) 는 품목수 대비 비중임.

< '05-12년 운송장비 경쟁 품목수 변화 >  
(단위 : 개)

| 구분       | 절대우위 |    | 상대우위 |    | 상대열위 |    | 절대열위 |    |
|----------|------|----|------|----|------|----|------|----|
|          | 5년   | 2년 | 5년   | 2년 | 5년   | 2년 | 5년   | 2년 |
| 철도·항공·선박 | -1   | 2  | 1    | 3  | 1    | -3 | -1   | -2 |
| 자동차 및 부품 | -2   | 1  | 1    | 3  | 1    | -3 | 0    | -1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HRI 재구성.  
주 : 5년간(2005-2010년), 2년간(2010-2012년).

### 3. 시사점

- 양국간 품목별 경쟁력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對中 경쟁력은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세부품목별로는 경쟁력에 위협을 받는 품목들이 증가하고 있음
  - 농축수산물, 전자·기계 등 전체 7개 분야의 對中 경쟁력은 지속 확대
    - 한국의 對中 경쟁우위품목은 2005년 771개에서 2012년 863개로 92개 품목이 증가한 반면, 경쟁열위품목은 2012년 384개로 지난 2005년 476개보다 92개 감소
    - 더욱이 경쟁우위품목의 대중 수출은 증가하고, 경쟁열위품목의 對中 수입은 감소하고 있어 對中 수출경쟁력도 아직은 우위를 보임
  - 하지만, 세부품목별 변화를 살펴보면, 화학제품, 섬유·가죽제품, 펄프·목제품, 운송장비 등 분야는 對中 경쟁력 우위가 지속되고 있으나, 농축수산물, 비금속제품, 전자·기계 등 분야는 경쟁력이 지속 약화되고 있음
    - 화학제품, 섬유·가죽제품, 펄프·목제품 등 분야는 경쟁우위품목이 지속 증가하는 반면, 경쟁열위품목은 감소
    - 반면, 전자·기계 분야는 경쟁우위품목은 지속 감소하나, 경쟁열위품목은 증가하면서 對中 경쟁력 약화가 지속
    - 더욱이 비금속제품 분야는 경쟁우위품목이 증가하나 미약하며, 경쟁열위품목도 소폭 감소에 그치며 경쟁이 약화
    - 특히, 농축수산물 분야는 비록 對中 경쟁력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나, 수산물, 작물 등 일부품목은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는 양상을 보임
- 민감 품목 선정 등 한중 FTA 2단계 협상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내용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
  - 첫째, 협상초기와 비교해 양국 품목간 비교우위 변화 고려 필요
    - 지난 2005년 민간공동연구 시작 시기와 2010년 종료 시기를 비교해 양국 품목간 경쟁력 변화를 적극 검토해야 함
    - 더욱이 2010년과 비교해 2012년 본격적 1차 협상이 개시되었을 때의 품목간 경쟁력 변화도 점검 필요

- 둘째, 현재 비교우위는 있으나, 상대국 정책적 규제로 인하여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에 대한 보완 대책 필요
  - 중국의 기술추격이 빠른 화학, 기계 등 제조업 분야에서는 수입규제 등 정책으로 국내산업에 대한 타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간 수출입 정책에 의한 비교우위 변화도 고려해야 함
  - 더욱이, 제조업의 가치사슬을 고려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발전기반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음
  
- 셋째, 본격적인 FTA 2단계 협상에 앞서 對中 비교열위산업에 대한 경쟁력 보완 대책 마련도 강구
  - 농축수산물, 철강 등 비금속제품, 전자·기계분야 등 對中 경쟁우위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 산업에 대한 경쟁력 보완 대책 필요
  - 또, 화학제품, 섬유·가죽제품 등 비록 현재는 전반적으로 對中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경쟁열위품목도 상존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고려 필요
  
- 넷째, 산업별 실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현실적인 대응 필요
  - 민감 품목의 협의에서 각 산업별 실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협상에 접근할 전략 모색 필요
  - 특히, 농축수산물 등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애로점 반영 대책도 강구
  
- 다섯째, 신성장산업 등 산업육성전략에 대한 중장기적인 보안 대책 모색
  - 신성장산업 등 중국의 기술추격이 빠른 분야뿐 아니라, 우주·항공 등 중국의 기술우위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전적 전략 마련이 필요
  - 향후, 중장기적으로 육성시킬 산업분야에 대한 경쟁력 보안 대책도 필요 **HRI**

경제연구본부 천용찬 연구원 (junius73@hri.co.kr, 2072-6274)  
한재진 연구위원 (hzz72@hri.co.kr, 2072-6225)

□ 부록 1 : 단계별 품목군 분류 과정

① 1단계 분류 : MCA에 의한 품목군 분류

○ 1단계에서는 2012년 현재 중국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을 토대로 4개의 품목군으로 분류

- 특정국가의 특정 제품의 비교우위분석은 일반적으로 현시비교우위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 RCA)지수를 사용
  - 현시비교우위 지수란 세계 전체수출시장에서 특정상품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국의 수출에서 동 상품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사이의 비율로, 특정 상품의 비교우위를 판단하는 데 쓰임
  - 다만, RCA분석은 전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은 판단할 수 있으나, 특정 대상국 시장에서의 비교우위는 판단의 한계 존재
- 특정시장(중국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 분석을 위해 RCA를 변형한 시장비교우위(Market Comparative Advantage : MCA)지수로 대체 사용
  - MCA지수 도출 공식은 다음과 같음

$$MCA = \frac{(O_{ijw}/O_{ij})}{(I_{jw}/I_j)}$$

※  $O_{ijw}$ 는 i국의 對j국에 대한 w제품 수출총액

$O_{ij}$ 는 i국의 對j국 수출총액

$I_{jw}$ 는 j국의 w제품 수입총액

$I_j$ 는 j국의 수입총액

- MCA지수가 1 이상이면 해당 품목이 중국보다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 절대우위로 분류

< 1단계 : 품목별 對中 MCA에 따른 산업분류 >

| 산업구분 | 구분 기준                   | 산업구분 | 구분 기준                     |
|------|-------------------------|------|---------------------------|
| 절대우위 | 對中 MCA $\geq 1$         | 상대열위 | $0.1 \leq$ 對中 MCA $< 0.5$ |
| 상대우위 | $0.5 \leq$ 對中 MCA $< 1$ | 절대열위 | 對中 MCA $< 0.1$            |

- MCA지수가 1 미만, 0.5 이상이면 해당 품목이 중국과 경합 가능하다고 판단, 상대우위로 분류
- MCA지수가 0.5 미만, 0.1 이상이면 해당 품목이 중국에 대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 상대열위로 분류
- MCA지수가 0.1 미만인 품목은 중국에 대해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 절대열위 품목으로 분류

② 2단계 분류 : MCA가 높은 품목군에 대한 재조정

- 1단계에서 분류된 상대 및 절대 열위 품목군 선정 오류를 수정하는 단계
  - 상대 및 절대 열위 품목 중, 과거 12년간 MCA 증가속도가 빠른 품목의 분류를 한 단계씩 격상해 재조정
    - 2012년 현재의 MCA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과거 12년간 증가속도가 크게 나타났으면, 향후 해당 품목이 경쟁력 확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 1단계에서 분류한 상대 및 절대 열위 품목의 2005~2012년 사이 연평균 MCA가 20%보다 크게 나타나면 상대열위 품목은 상대우위로, 절대열위 품목은 상대열위로 격상

< 2단계 : MCA에 따른 산업분류 재조정 >

| 조정 조건                                 | 1단계  | 2단계  |
|---------------------------------------|------|------|
| 조정하지 않음                               | 절대우위 | 절대우위 |
| 조정하지 않음                               | 상대우위 | 상대우위 |
| 2000~2012년 사이 연평균 MCA 증가속도 20% 이상인 품목 | 상대열위 | 상대우위 |
|                                       | 절대열위 | 상대열위 |

③ 3단계 분류 :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하여 품목군 재조정

- 2단계 분류에서 경쟁력이 강한 품목을 재분류하는 단계
  - 무역수지와 교역총액 등을 고려한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 TSI)를 사용, 2단계 분류결과를 재보완**

- TSI는 한 상품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 그리고 전체 무역액을 이용해 상품의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對상대국 경쟁력 지수로 사용됨
- TSI 도출 공식은 다음과 같음

$$TSI_c = \frac{(O_c - I_c)}{(O_c + I_c)}$$

※  $O_c$ 는 한국의 對中 수출총액

$I_c$ 는 한국의 對中 수입총액

- TSI가 1이면 해당 품목에서 한국은 중국에 대해 완전 수출특화이며, -1이면 완전 수입특화, 0이면 수출입 규모가 같은 것을 의미함
- 즉 TSI가 1에 가까울수록 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평가

**< TSI 분류 기준 >**

| 구 분        | 구 분 기 준                           |
|------------|-----------------------------------|
| 한국의 절대적 우위 | $0.5 \leq \text{對中 TSI} \leq 1$   |
| 한국의 상대적 우위 | $0.25 \leq \text{對中 TSI} < 0.5$   |
| 양국 경합      | $-0.25 \leq \text{對中 TSI} < 0.25$ |
| 중국의 상대적 우위 | $-0.5 \leq \text{對中 TSI} < -0.25$ |
| 중국의 절대적 우위 | $-1 \leq \text{對中 TSI} < -0.5$    |

- 품목별 무역수지 및 교역규모 등을 고려한 2012년 對中 TSI를 기준으로 품목군 재조정
  - MCA지수는 상대국에 대한 수출액만 고려하지만, TSI분석을 통하여 무역수지와 교역규모까지 고려하여 2단계의 품목군 분류를 재조정
  - 절대우위 중에서 對中 무역특화지수(TSI)를 기준으로, 중국이 상대적 우위로 나타난 품목은 상대우위로, 중국이 절대적 우위를 나타난 품목은 상대열위로 조정
  - 또한, 對中 경쟁이 치열한 상대우위 및 경쟁력이 취약한 상대열위에 해당되는 품목들 중에서 중국에 대해 절대적 경쟁력을 확보(한국의 절대적 우위)하고 있는 품목을 절대우위로 조정함

< 3단계 : TSI에 따른 산업분류 조정 >

| 조정 조건                     | 2단계  | 3단계  |
|---------------------------|------|------|
| -0.5 ≤ 對中 TSI < -0.25인 품목 | 절대우위 | 상대우위 |
| -1 ≤ 對中 TSI < -0.5인 품목    |      | 상대열위 |
| 0.5 ≤ 對中 TSI ≤ 1인 품목      | 상대우위 | 절대우위 |
|                           | 상대열위 | 상대우위 |
| 조정하지 않음                   | 절대열위 | 절대열위 |

④ 4단계 분류 : 수입특화 제품들을 최종적으로 재조정

○ 3단계 분류에서 경쟁력이 강한 품목을 재분류하는 단계

- 3단계 분류 결과의 상대 및 절대 열위에 속한 품목 중에서 중국에 대해 수입 특화된 품목은 일반품목으로 조정
  - 對中 상대 및 절대 열위로 분류된 품목 중에는 열대과일 및 일부 국내 시장에 대해 경쟁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른바 수입특화된 제품들도 포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마지막 4단계 절차에서는 기존의 3단계 분류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 및 절대 열위에 속한 품목들 중 對中 TSI가 -1에서 -0.9인 품목(수입특화된 품목)들을 상대우위로 이동

< 4단계 : TSI에 따른 산업분류 최종 조정 >

| 조정 조건                   | 3단계  | 4단계  |
|-------------------------|------|------|
| 조정하지 않음                 | 절대우위 | 절대우위 |
|                         | 상대우위 | 상대우위 |
| -1 ≤ 對中 TSI ≤ -0.9 인 품목 | 상대열위 | 상대열위 |
|                         | 절대열위 | 상대우위 |

□ 부록 2 : 2012년 산업별 품목의 분류 결과

(단위 : 개, %)

| 구 분    | 절대우위             | 상대우위         | 상대열위         | 절대열위         | 합 계          |                            |
|--------|------------------|--------------|--------------|--------------|--------------|----------------------------|
| 농축수산물  | 축 산              | 0<br>(0.0)   | 0<br>(0.0)   | 14<br>(87.5) | 2<br>(12.5)  | <b>16</b><br><b>(100)</b>  |
|        | 수 산              | 0<br>(0.0)   | 4<br>(50.0)  | 4<br>(50.0)  | 0<br>(0.0)   | <b>8</b><br><b>(100)</b>   |
|        | 가 공 식 품          | 14<br>(15.2) | 54<br>(58.7) | 16<br>(17.4) | 8<br>(8.7)   | <b>92</b><br><b>(100)</b>  |
|        | 작 물<br>(과일,채소 등) | 1<br>(3.1)   | 27<br>(84.4) | 4<br>(12.5)  | 0<br>(0.0)   | <b>32</b><br><b>(100)</b>  |
|        | 곡 물 · 종 자        | 3<br>(9.7)   | 27<br>(87.1) | 1<br>(3.2)   | 0<br>(0.0)   | <b>31</b><br><b>(100)</b>  |
|        | 동식물성 유지          | 2<br>(9.2)   | 16<br>(72.7) | 1<br>(4.5)   | 3<br>(13.6)  | <b>22</b><br><b>(100)</b>  |
| 기타     | 광 산 품            | 7<br>(10.8)  | 37<br>(56.9) | 8<br>(12.3)  | 13<br>(20.0) | <b>65</b><br><b>(100)</b>  |
| 화학제품   | 의료·화장품           | 6<br>(30.0)  | 6<br>(30.0)  | 5<br>(25.0)  | 3<br>(15.0)  | <b>20</b><br><b>(100)</b>  |
|        | 유·무기화학품          | 30<br>(30.0) | 37<br>(37.0) | 29<br>(29.0) | 4<br>(4.0)   | <b>100</b><br><b>(100)</b> |
|        | 화 학 공 업 품        | 19<br>(31.1) | 25<br>(41.0) | 13<br>(21.3) | 4<br>(6.6)   | <b>61</b><br><b>(100)</b>  |
|        | 플라스틱·고무          | 23<br>(53.5) | 6<br>(14.0)  | 10<br>(23.3) | 4<br>(9.3)   | <b>43</b><br><b>(100)</b>  |
| 섬유·가죽  | 원피·가죽·모피         | 8<br>(27.6)  | 13<br>(44.8) | 7<br>(24.2)  | 1<br>(3.4)   | <b>29</b><br><b>(100)</b>  |
|        | 섬 유 제 품          | 45<br>(26.6) | 71<br>(42.0) | 50<br>(29.6) | 3<br>(1.8)   | <b>169</b><br><b>(100)</b> |
| 펄프·목제품 | 목 제 품            | 0<br>(0.0)   | 24<br>(88.9) | 2<br>(7.4)   | 1<br>(3.7)   | <b>27</b><br><b>(100)</b>  |

보도참고자료 : 한중 FTA 2단계 협상이 더 중요하다!

(단위 : 개, %)

| 구 분        |           | 절대우위                        | 상대우위                        | 상대열위                        | 절대열위                      | 합 계                          |
|------------|-----------|-----------------------------|-----------------------------|-----------------------------|---------------------------|------------------------------|
|            | 목재·펄프·종이  | 8<br>(20.0)                 | 17<br>(42.5)                | 9<br>(22.5)                 | 6<br>(15.0)               | <b>40</b><br><b>(100)</b>    |
|            | 기타        | 6<br>(12.2)                 | 22<br>(44.9)                | 19<br>(38.8)                | 2<br>(4.1)                | <b>49</b><br><b>(100)</b>    |
|            | 귀 석 귀 금 속 | 5<br>(27.8)                 | 8<br>(44.4)                 | 2<br>(11.1)                 | 3<br>(16.7)               | <b>18</b><br><b>(100)</b>    |
| 비금속제품      | 철강 및 그 제품 | 14<br>(25.5)                | 20<br>(36.4)                | 19<br>(34.5)                | 2<br>(3.6)                | <b>55</b><br><b>(100)</b>    |
|            | 기타 비(卑)금속 | 35<br>(34.3)                | 41<br>(40.2)                | 19<br>(18.6)                | 7<br>(6.9)                | <b>102</b><br><b>(100)</b>   |
| 전자·기계      | 기계·증장비    | 34<br>(39.1)                | 23<br>(26.4)                | 25<br>(28.8)                | 5<br>(5.7)                | <b>87</b><br><b>(100)</b>    |
|            | 전기·전자·반도체 | 20<br>(41.7)                | 16<br>(33.3)                | 11<br>(22.9)                | 1<br>(2.1)                | <b>48</b><br><b>(100)</b>    |
| 운송장비       | 철도·항공·선박  | 3<br>(13.6)                 | 17<br>(77.3)                | 2<br>(9.1)                  | 0<br>(0.0)                | <b>22</b><br><b>(100)</b>    |
|            | 자동차 및 부품  | 6<br>(37.5)                 | 7<br>(43.8)                 | 1<br>(6.3)                  | 2<br>(12.5)               | <b>16</b><br><b>(100)</b>    |
| 전자·기계      | 정 밀 기 기   | 5<br>(15.2)                 | 11<br>(33.3)                | 13<br>(39.4)                | 4<br>(12.1)               | <b>33</b><br><b>(100)</b>    |
| 기타         | 시 계·악 기   | 1<br>(4.3)                  | 15<br>(65.3)                | 7<br>(30.4)                 | 0<br>(0.0)                | <b>23</b><br><b>(100)</b>    |
|            | 방 위 제 품   | 1<br>(14.3)                 | 5<br>(71.4)                 | 0<br>(0.0)                  | 1<br>(14.3)               | <b>7</b><br><b>(100)</b>     |
|            | 잡품·예술품    | 3<br>(9.4)                  | 15<br>(46.9)                | 13<br>(40.6)                | 1<br>(3.1)                | <b>32</b><br><b>(100)</b>    |
| <b>합 계</b> |           | <b>299</b><br><b>(24.0)</b> | <b>564</b><br><b>(45.2)</b> | <b>304</b><br><b>(24.4)</b> | <b>80</b><br><b>(6.4)</b> | <b>1,247</b><br><b>(100)</b> |

주 : ( )는 2012년 분야별 품목 비중임.

□ 부록 3 : 2005~2012년 산업별 품목수 변화 추이

(단위 : 개)

| 구 분    |             | 절대우위 |     | 상대우위 |     | 상대열위 |     | 절대열위 |     |
|--------|-------------|------|-----|------|-----|------|-----|------|-----|
|        |             | 5년간  | 2년간 | 5년간  | 2년간 | 5년간  | 2년간 | 5년간  | 2년간 |
| 농축수산물  | 축 산         | 0    | 0   | 0    | 0   | 1    | 0   | -1   | 0   |
|        | 수 산         | 0    | 0   | 0    | -1  | 0    | 1   | 0    | 0   |
|        | 가 공 식 품     | -3   | 0   | 7    | 6   | 3    | -6  | -7   | 0   |
|        | 작물(과일,채소 등) | -2   | 0   | 5    | -1  | 1    | 1   | -4   | 0   |
|        | 곡 물 · 종 자   | 0    | 1   | 4    | 2   | 0    | -3  | -4   | 0   |
|        | 동식물성 유지     | 1    | -1  | 1    | 1   | -2   | 1   | 0    | -1  |
| 기타     | 광 산 품       | 1    | -2  | 2    | 6   | 0    | -5  | -3   | 1   |
| 화학제품   | 의 료 · 화 장 품 | 0    | -2  | 4    | 0   | 0    | 1   | -4   | 1   |
|        | 유·무기화학품     | 3    | 0   | -1   | 7   | 0    | -2  | -2   | -5  |
|        | 화 학 공 업 품   | -5   | 1   | 6    | 1   | 1    | 0   | -2   | -2  |
|        | 플라스틱·고무     | -2   | 3   | 3    | -2  | 0    | 0   | -1   | -1  |
| 섬유·가죽  | 원피·가죽·모피    | -2   | 2   | 2    | 3   | 0    | 0   | 0    | -5  |
|        | 섬 유 제 품     | -6   | -8  | 14   | 21  | 7    | -13 | -15  | 0   |
| 펄프·목제품 | 목 제 품       | 0    | 0   | 7    | 5   | -1   | -4  | -6   | -1  |
|        | 목재·펄프·종이    | -5   | -4  | 3    | 2   | 2    | 2   | 0    | 0   |
| 기타     | 석·도자기·유리    | 0    | 1   | 5    | -6  | -2   | 5   | -3   | 0   |
|        | 귀 석 · 귀 금 속 | 2    | -1  | 2    | 1   | -2   | 1   | -2   | -1  |
| 비금속제품  | 철강 및 그 제품   | 1    | -14 | -1   | 9   | 0    | 4   | 0    | 1   |
|        | 기타 비(卑)금속   | 2    | -5  | 8    | 6   | -4   | 1   | -6   | -2  |
| 전자·기계  | 기 계 · 증 장 비 | -6   | -7  | 6    | 2   | 4    | 5   | -4   | 0   |
|        | 전기·전자반도체    | 9    | -2  | 4    | 1   | -2   | 0   | -2   | 1   |
| 운송장비   | 철도·항공·선박    | -1   | 2   | 1    | 3   | 1    | -3  | -1   | -2  |
|        | 자동차 및 부품    | -2   | 1   | 1    | 3   | 1    | -3  | 0    | -1  |
| 전자·기계  | 정 밀 기 기     | 4    | -7  | 0    | 3   | -3   | 4   | -1   | 0   |
| 기타     | 시 계 · 악 기   | 0    | -2  | 7    | -1  | -2   | 4   | -5   | -1  |
|        | 방 위 제 품     | 0    | 0   | 0    | -1  | 0    | 0   | 0    | 1   |
|        | 잡 품 · 예 술 품 | -2   | -6  | 1    | 3   | 2    | 4   | -1   | -1  |

주 : 5년간(2005~2010년), 2년간(2010~2012년) 기준.